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자부심

자신과 자신의 일을 믿고
당당할 수 있는 마음

心 희망찬 마음=
: 마음 심



深 뜻깊은 오늘+
: 깊을 심

審 살피갈 내일!
: 살필 심



2019
03

Vol. 514

2019.03



자부심은 성공으로 가기 위한 가장 큰 원동력이자 자신과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자부심은 주변 동료들에게도 전염되어 시너지 효과를 올려 주기도 합니다. 월간 <교정>에서 자부심의 참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좌측 QR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월간

<교정> 참여 코너의 신청, 낱말퀴즈 정답 응모, 독자 사연 & 독자 의견 송부 등이 가능합니다.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교정 2019년 3월호 (통권 514호) 63권 3호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반디컴 02)2272-1190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카카오스토리 아이디 mojcor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친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찬 마음 =

Contents

04 마음을 열다

06 테마를 넘다
나를 세우다

08 사람을 읽다
한국교정계의 개혁을 이끈 신뢰와 지성의 목소리
(한국교정학회 회장 이영근)

12 역사를 품다
위대한 아들을 길러낸 위대한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그녀의 나라와 아들에 대한 자부심

14 추억을 담다
독자에게 들어보는 '자부심'



深

뜻깊은 오늘 +

16 교정은 행복을 신고
행복한 민원실을 위해 즐거움을 배달하다
(서울구치소 민원과 민원실)

20 영화 같은 하루
교정·교화의 중심!
자부심과 동료애로 언제나 함께합니다
(군산교도소 사회복귀과)

24 일상 상담소
새로운 사람과 관계 형성하기

26 마음 나침반
당신의 자부심은?

28 시간을 달리는 교정
현재로 돌아온 철수

30 여행 따라 잉글리쉬
호주 시드니 관광지4+ 식당에서 필요한 영어 표현

32 신조어백과
사바사&가심비

34 글로벌 핫클릭
일본, 교도소 독감 기승으로 수용자 작업장 운영 중단 외



審

살펴갈 내일!

36 여민 교정
수용자와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다
(서울동부구치소)

40 교정 희망의 백일장 I
행복에 집중하자

42 교정 희망의 백일장 II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내 자신에 솔직해 지겠습니다

44 교정을 말하다
교정행정조직 유관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上)

50 국민이 전하다
누군가의 꿈이자 미래, 교정공무원 외

52 NEWS
본부 소식 & 일선기관 소식

59 모범공무원 소개

60 낱말퀴즈

61 생활상식

62 독자의 소리



“자부심을 갖고 너의 길을 가라.
남들이 무엇이라 하든지 내버려 두라.”

- 단테(13세기 이탈리아의 시인, 예언자, 신앙인) -



자부심은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로 13세기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전 인류에게 영원불멸의 거작 <신곡>을 남긴 단테는 “자신의 길을 가는 데 있어 자부심을 가지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남들이 그 길에 대해 무어라 말하더라도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자부심이란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며, 단테는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이 자신과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일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결정한 길이 맞는지 의심을 하곤 한다. 하지만 자신의 결정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 길을 간다면 그 끝에는 ‘성공’과 ‘뿌듯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등등하고 당당하고 어엿하게 나를 세우고

학창시절에 ‘탈무드’를 감동 깊게 읽은 적이 있다. 탈무드는 히브리어로 ‘교훈’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유대인들의 교육과 처세 지침서이기도 하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다.

어느 날 한 랍비가 고민에 빠졌다.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얼마 후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작 자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랍비는 자신의 장점을 생각해보고 열거해보았다. 손꼽아 따지고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에게 좋은 점이 훨씬 많았다. 그렇게 되자 그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십계’ 가운데 ‘흠치지 말라’는 계명을 읽다가 문득 생각했다. 스스로 자신감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물건을 흠치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자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렸다. 요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책들이 유행처럼 출간되고 있다. 이 책들은 자신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다음 기회가 있다고 자신을 격려하라고 말한다. 지금 이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한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없는 까닭일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의 좋은 점을 말해줄 때는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고, 마음에 활기가 생기게 마련이다. 나는 한 사람이 내게 “손이 참 잘생겼네. 손가락이 가느스름하고 기다랗고”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심성이 어떻든지, 생김새가 어떻든지, 살아가는 태도가 어떻든지 말하는 그런 큰 칭찬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듯이 들리는 칭찬이었지만, 기분이 썩 좋았던 기억이 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떤 일이든 새로이 시작할 때, 그리고 어떤 일에서 높은 파도와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렵게 된다. 그래서 ‘자기를 섬으로 삼아라’라는 말이 있다.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자기를 의지할 곳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오르막길을 오르거나 끝도 없이 이어지는 내리막길을 갈 때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나를 당당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격려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비록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도 스스로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할 일이다. 스스로 ‘그래도 좋아’라고 말할 일이다. 이렇게 해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스스로 흠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이 화제다. 이 시는 짧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단 세 행뿐인 이 시가 많은 독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까닭은 자세하게 오래 바라보면,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누구든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뜻 때문일 것이다. 내가 내면에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사랑을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다.

또 한편 나태주 시인은 ‘풀꽃 3’에서 이렇게 썼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어깨를 펴고 뚝뚝하게 살면, 스스로 실망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든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뜻이다. 삶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경험이 있다. 혼자 오래 먼 길을 걷거나, 오래 서서 천천히 땀을 흘리며 걷거나, 오래 앉아 생각에 잠기거나 한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용서의 악수를 건네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나를 스스로 일으켜 세운다. 그러면 지금 내가 처해있는 어려움과 곤란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빛이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잘못이나 오해 때문에 험담을 듣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을 굳건하게 세우면 크게 문제 될 것도 없다. 또 근거 없는 비방에는 침묵하면 될 일이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다. “큰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칭찬이나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무엇 하나만 자신이 잘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자꾸 떠올려도 좋다. 얼마 전 한 선생님을 뵈었더니 선생님은 요즘 자신과의 대화를 가끔씩 갖는다고 말씀하셨다. 연세가 연만해지면서 성에 차지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에게 질문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 하나가 뭐지? 가장 하고 싶은 일 하나가 뭐지?’라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혼자 묻고 답하면 스스로 자부심과 자신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되고, 또 잘 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게 된다고 하셨다. 선생님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록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지만, 평생 시를 써오신 분이셨다. 선생님의 말씀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고, 내가 가진 자부심의 내용을 돌아보게 했다.

우리는 바다에 띄운 종이배와도 같은 것에 타고 있는 사람들일 지도 모른다. 그리고 중국에 종이 배는 젖어서 침몰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배 안으로 들어오는 바닷물을 퍼내면서, 노를 저으면서,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저 멀리에 있을 항구를 향해 항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나를 등등하게 어엿하게 세우고, 내 내부에서 희망의 빛을 찾을 일이다.

문태준(文泰俊)

1970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났다. 1994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에 시 「처서(處暑)」 외 9편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시집으로 『수련거리는 뒤란』, 『맨발』, 『가재미』, 『그들의 발달』, 『먼 곳』,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등이 있다. 노작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애지문학상, 목월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한국교정계의 개혁을 이끈 신뢰와 지성의 목소리

교정공무원들의 강한요구에서 출발한 한국교정학회

사전에 나와 있는 ‘학회’의 의미는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회는 학문적 연구를 통해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거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 소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0년에 창립한 한국교정학회는 출범 배경부터 여느 학회와는 또렷하게 구분됩니다. 보통 해당 분야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학회를 결성하는 것과 달리 한국교정학회는 실무에 맡고 있는 교정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동력으로 작용했죠.”

범죄자의 재사회화 연구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교정행정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최접점에 있는 교정공무원들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한국교정학회 이영근 회장은 남달랐던 출발에 걸맞게 구성원 분포와 활동 면에서도 교정학회만의 정체성이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우선 총 800여 명의 회원 중 이 회장을 포함한 교수회원 100여 명 외에 교정공무원 400여 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교정공무원들은 정기적인 학회와 세미나 외에도 수시로 열리는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회의 연구 분야와 방향을 실무와 연계시켜 실질적인 교정 발전으로 이어지게 했다. 단순히 전달자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직접 교정 관련 논문을 쓰는 교정공무원들도 적잖은데,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덕분에 1년에 4번 <교정연구>라는 제호의 논문모음집을 정기적으로 발행해오고 있는데요. 교정 관련 학회지로는 국내 처음으로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교정공무원에겐 교정국장직을, 수용자에겐 필기도구 소지를

한국교정학회는 학회로서 기본적인 기능에 머물지 않고 한국교정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 개선하는 적극성까지 발휘했다. 여기엔 창립멤버로서 오랜 기간 상임이사과 부회장으로 활동해오다 지난해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 회장의 역할이 컸다.

“1994년부터 이듬해까지 한국교정학회를 대표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영근 한국교정학회 회장

이영근 회장과 한국교정계의 인연은 1989년 그가 경기대 교정학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그는 한국교정학회를 비롯해 한국교정교회사업연구소, 행정쇄신위원회, 국무총리 자문위원, 한국범죄예방정책연구원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등 교정 관련 단체의 임원 및 단체장을 역임하면서 교정행정 발전에 획기적인 공적을 이룬 인물로 손꼽힌다. 그중에서도 창립멤버이자 상임이사로 오랜 기간 핵심 역할을 맡아오다 지난해부터 회장직을 수행 중인 한국교정학회는 유독 각별하다. 이 회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교정공무원 지위향상을 비롯한 교정행정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한국교정계의 개혁을 이끌 수 있도록 든든한 배경이 되어준 까닭이다.



“
 하나하나 민감한 이슈였지만
 옳은 방향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한국교정학회라는 든든한
 소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당시의 수용자 인권은 그야말로 형편없었어요. 교정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정학회 대표로 행정쇄신위원회에 참여한 만큼 한국교정계를 개선할 기회로 삼았죠. 그 당시 김영삼 정부 시절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인명진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성과는 두둑했고 조목조목 눈부셨지만 이 회장이 가장 자부심을 갖는 건 그간 검찰인사인 검사장이 맡아왔던 교정국장직을 교정공무원이 맡도록 한 것이다. 행정쇄신위원회 활동 시 이 회장이 만들어 안건으로 올렸던 이 법안은 거센 반발에 부딪혔으나 김대중 정부 출범과 더불어 당시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이자 행정조직개편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대부 고 이문영 교수의 도움으로 통과되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에 폐지 예정이던 4개의 지방교정청을 존치시키는 데도 이 회장의 공로가 컸다. 당시 이문영 교수를 비롯한 행정조직개편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폐지의 부당성을 설득력 있게 피력한 덕분에 지방교정청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

당시 수용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제약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도 이 회장이었다. 수용자 단식(머리카락을 짧게 잘라야 하는)조항 폐지, 수용자 집필도구 소지 허용 등 굵직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 그중에서도 수용자 집필도구 소지는 한국교정계

에서 수용자 인권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하나하나 민감한 이슈였지만 옳은 방향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한국교정학회라는 든든한 소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정공무원들의 필요성이 도화선이 되어 창립한 학회인 만큼 개혁을 위한 명석은 교정공무원들이 짊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부심으로 접철된 준교정인으로서의 30년

그동안 교정 관련 다양한 기관 및 단체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온 이 회장은 여전히 일인다역의 삶을 소화하고 있다. 내년이면 30년의 인연을 쌓게 되는 한국교정학회장 외에도 한국사법교육원 이사장직을 병행 중이다. 타이틀에 따라 하는 일은 다를지언정 스스로 준교정인이라 말할 만큼 모두 한국교정계의 발전과 직간접적으로 닿아 있다.

“교정학계에 몸담은 지 올해로 30년째를 맞았는데요. 한국 교정계의 발전을 견인했고 지금도 적재적소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해내는 훌륭한 교정공무원들을 길러냈다는 점에서 보람이 크고요. 이와 별개로 은퇴한 교정공무원을 경기도 교정보호학과 정식 교수로 초빙해 관·학 협조체계를 구축했

다는 데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교정공무원이 정식 교수로 초빙되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로 학계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반대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다. 하지만 교정공무원은 여느 공무원과 달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분야인 만큼 이론과 실무 어느 쪽도 소홀할 수 없다는 이 회장의 설득에 결국 교정공무원의 대학 교수 영입이 현실화될 수 있었다. 더욱 고무적인 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현재 3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가운 변화 중 하나는 이를 계기로 교정공무원들의 면학 분위기가 몰라보게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교정공무원들 중 석·박사 과정에 있는 이들이 적잖은 것으로 아는데요. 과거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에 ‘해방된 조국의 교도관은 대학원 이상을 졸업한 이들이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신 만큼 면학 열정에 걸맞게 교정공무원들이 스스로 특수교육을 하는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로서 예비 교정공무원들을 길러내고 현직 교정공무원들에게 면학 분위기를 고취시켰다면 한국사법교육원은 국민들 대상의 사법 서비스를 통한 ‘법의 대중화’를 위해 2008년 개원했다. 이 회장의 선진이자 불우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에 앞장서온 고 이승휘 원장이 병원장으로 있던 경기후생병원 건물에 일반 시민 대상의 생활 법률교육과 청소년 선도 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법교육원을 차린 것. 시민운동 차원에서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이 크지만 시민로스를 실시하는 전국지회가 10곳이 넘는 만큼 앞으로 더욱 활성화해나겠다는 게 이 회장의 생각이다.



개혁의 처음을 열었으니 마지막도 의미 있게

물론 이 회장은 한국교정학회 활동에 무게중심을 두고 올 한 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국 감옥시찰 등 40번이 넘는 중국과의 민간외교를 이끌고 교정 관련 40여 편의 논문과 11권의 저서를 집필하는 등 준교정인의 삶을 통해 한국교정계의 발전에 지문을 문힌 한 사람으로서 한국교정학회에 몸담고 있는 동안 이루고 싶은 바가 남아있는 까닭이다. “한국교정학회 활동 초기에 교정공무원에게 교정국장직을 찾아주었던 교정공무원법 제정과 ‘교정교화청’ 독립을 실현하는 게 남은 목표입니다. 수용자 처우 면에서는 수용자 과밀현상 이외에는 사실 문제점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선진화되었지만 선시제도(선행보상제)만큼은 꼭 도입 되길 바랍니다.”

현재 군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은 모두 제각각의 법이 있음에도 교정공무원을 위한 법은 따로 없는 만큼 이 회장은 한국교정학회가 주축이 되어 교정공무원법 제정을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교정교화청’ 독립은 이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다 지난해 회장에 취임하면서 그가 유독 힘을 쏟고 있는 한국교정학회의 핵심사업이다. 법무부 교정보부를 ‘교정교화청’으로 독립시켜 교정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이 회장을 포함한 한국교정학회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수용자들을 위한 ‘선시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도 남다르다. 선시제도란 수용자의 개선 정도에 따라 수시로 형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용 중인 만큼 조속한 도입을 바라고 있다.

한국교정학회 창립 초기에 굵직한 개혁을 실행에 옮겼듯 3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또 한 번 교정행정과 교정공무원 그리고 수용자에게 제각각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이영근 회장. 그의 말처럼 무엇 하나 놓치지 않겠지만 준교정인으로서 오랜 기간 키워온 자부심과 한국교정학회라는 신뢰와 지성의 목소리가 함께하는 한 그가 한국교정학계에 건넨 마지막 선물도 알차리라 기대해본다.

위대한 아들을 길러낸 위대한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그녀의 나라와 아들에 대한 자부심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어머니의 존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여기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 어머니가 있다. 자신의 소중한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걸로는 의연하게 대처했던 철의 여인은 바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다. 조 여사의 의연함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아들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없었다면 발현되지 않았을 것이다.



영웅의 뒤에는 어머니가 있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의 뒤에는 격려와 위로, 용기를 북돋아 주는 숨은 조력자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조력자로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일대기가 근래에 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조마리아 여사의 본명은 조성녀(趙姓女, 1862~1927년)로 우리나라의 영웅인 도마 안중근 선생의 어머니다. 조마리아 여사 역시 아들과 같이 독립운동가였으며, 김구 선생의 어머니인 광낙원 여사와 함께 우리나라 전체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적 지주였다. 그녀는 아들인 안중근 선생이 억울하게 처형된 후에도 만주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우며 스스로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일제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자 항소하지 말라고 권했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 조마리아 여사는 자식이 사형 선고 받았음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왜놈 순사를 호령하며 당당하게 삶을 마감하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면회를 사절했다. 조 여사의 삶과 활동을 조명하는 3·1여성동지회 박용옥 회장은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마리아의 항일구국적 생애」라는 논문에서 “안중근이란 인물을 만든 것은 그 어머니의 ‘모성 리더십’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들의 죽음에도 의연했던 강인함

아들이 처형된 뒤에도 조마리아 여사는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다. 아들 안중근의 불굴의 정신은 바로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에게서 비롯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922년 조마리아 여사는 상해로 이주하여 2남 안정근과 함께 지내게 된다. 그녀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상해재류동포정부경제후원회’의 위원과 ‘임시정부경제후원회’의 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조마리아 여사는 1927년 7월 15일, 상해에서 위암으로 향년 66세를 일기로 서거하였는데,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아들의 희생 앞에서 부모로서의 개인적인 아픔을 뒤로하고, 국가와 대의를 위해 헌신한 여성 독립운동가 ‘조마리아’. 뿐만 아니라 상해 독립운동진영의 안주인이었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조마리아 여사. 그녀의 가르침은 자식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다. 조 여사의 일대기를 통해 우리는 조마리아 여사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녀가 자식들에게 보여준 조국에 대한, 그리고 그녀의 아들들에 대한 ‘자부심’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진정한 나라사랑과 자식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딱 맘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壽衣)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재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쓴 편지-



<교정> 독자에게 들어보는 '자부심'

3월호 <교정>지의 테마 주제는 '자부심'입니다.
여러분은 자신 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언제 자부심을 느끼셨나요? 자부심은 자긍심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며, 모든 일에 대해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핵심이 되기도 하죠.
이번 호 주제인 '자부심'과 관련해 독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자부심을 느낀 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입대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뭐하시냐고 물어보는 데 당당하게 '교도관' 이라고 답했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아닐까요.

<인천구치소 교감 윤용숙>

지난해, 동료들과 함께 출정한 전국교도관무도대회에서 우리 서울구치소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유도회의 일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또 제가 그 뒤에 결혼을 하는데 준비 과정에서 많이 배려해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팀원, 과장님, 계장님 모두가 저의 자부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울구치소 교도 이광열>

홍경석(일반독자_대전시 서구)

초졸 학력의 무지렁이 베이비부머 <교정> 독자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습관화해 온 독서 덕분에 지금은 8곳의 매체에 기고하는 작가 겸 기자가 되었습니다.

3월이면 두 번째 저서도 출간합니다. 그래서 저의 자부심은 하늘도 찌를 기세입니다.

야간근무 중에 아무런 교정사고 없이 근무를 평온하게 마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때로는 수용자의 소란이나 폭언, 기타규율위반 행위 등으로 근무자들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든 업무에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각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마음 속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나는 대한민국 교도관이다'라는 자부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주교도소 교도 권동혁>

학교를 졸업하고 다니던 회사에서 틈틈이 공부하여 '교정직 공무원'에 합격하였습니다. 연수원 입교 통지를 받은 후 회사에 사직서를 내려 갔을 때 상무님께서 "오, 대단하군! 공무원 시험 합격이라니 축하하네"라며 주위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인사를 시킬 때 저의 자부심 수치가 엄청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구교도소 교위 최송현>

제 자부심은 일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가장 큼니다. 3천 명의 수용자와 그 가족·지인을 상대하다 보니 일이 벅찰 때가 많은데 그만큼 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기 때문이지요.

수용자에게는 교정교화를 위한 관리자로서,

민원인들에게는 민원업무를 처리해주는 존재로서 제 자신이 꼭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서울구치소 교도 장민우>

* <교정>지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호 테마 주제와 관련된 독자분들의 에피소드나 관련 생각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추억을 담다'의 참여는 마지막 페이지의 엽서와 메일 그리고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행복한 민원실을 위해 즐거움을 배달하다

서울구치소 민원과 민원실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 고된 육체노동 못지않게 힘들다는 걸 모두가 아는 요즘, 그래서 서울구치소 민원실 직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남다르다. 교정 1번지라 불리는 서울구치소에서 하루에도 천 명이 넘게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맞이하는 그들의 놀라운 에너지를 함께 느껴보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인들이 찾는 곳

민원실 업무가 끝날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도 이곳은 여전히 북적 북적하다. 뭔가를 부탁하거나 기다리고 질문을 던지며 바쁘게 오가는 민원인들 덕분에, 서울구치소 민원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숫자는 총 13명. 직원들 모두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전화통화를 하며 민원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서울구치소는 하루에 찾아오는 민원인 숫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입니다. 수행자가 3,000명이 넘어가면 민원인 하루 방문 숫자가 1,500명이 넘어가요. 지금은 대략 1,100명~1,300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희순 교감이 민원실의 상황을 설명해준다. 그외중에 점점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민원실 내부 사람들의 동작들이 빨라진다. 업무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교정본부에서 배달되어온 선물보따리를 풀어봐야 한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민원실 내부에 놓여진 의자를 정리해서 잔칫상을 만들었다. 준비된 간식은 365일 먹어도 맛있는 치킨과 피자 그리고 콜라이다. 5시가 가까워 오는 터라 모두가 배가 고플 시간. 민원실에



맛있다, 즐겁다, 선물이다 🎵

간식을 얼추 다 먹자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게임을 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게임은 '가위바위보로 사회자를 이겨라'이다. 사회자가 외치는 가위 바위 보! 소리와 함께 하늘 높이 저마다 손을 들고 진 사람은 아쉬움 속에서 차례 차례 손을 내린다. 회차를 거듭한 끝에 결국 최종적으로 사회자를 이긴 사람은 민원실 직원! 상품으로 영화 예매권이 주어지자 모두가 부러움의 환호성과 박수를 보낸다. 이어서 미리 나누어준 행운번호 추첨이 있었다. 상자 안에 들어 있는 번호들을 골고루 섞어 하나씩 뽑을 때마다 모두가 기대로 눈빛이 반짝반짝 빛난다. 뽑힌 사람들에게 상품으로 커피 상품권이 주어지자 다들 또 열광한다. '아내가 가장 좋아할 것'이라며 신나게 상품을 받아든 직원부터 자신의 당첨을 양보하는 직원까지 분위기는 그야말로 화기애애 그 자체이다. 이어서 진행된 게임은 눈치게임이다. 눈치만 있어도 밥을

가득 퍼지는 치킨과 피자 냄새에 절로 침이 꿀꺽 넘어간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바쁜 민원실에서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을 위로하고자 본부에서 작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준비해 온 간식을 맛있게 드시고 작은 게임과 경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즐겨주세요!" 본부 교정기획과 빈호환 교위의 인사에 민원실 직원은 물론 모여든 민원과 직원들 모두가 열띤 박수를 보냈다. 민원과 직원들이 함께 모여 치킨과 피자, 콜라로 함께 간식을 나누는 자리는 즐겁기 짝이 없었다. 종종 소그룹별로 간식을 즐겨왔지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은 거의 없었던 탓이다. "다들 업무가 바빠서 이렇게 모이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자체가 매우 소중하게 느껴져요"라는 신동현 교도의 말에 주변 동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인 이유다.



얻어먹는다는 그 소중한 눈치를 중심으로 일단 3개 조로 나누었다. 순서대로 숫자를 부르되 겹쳐 부르거나 마지막 숫자를 부르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숨 막힐 듯한 긴장감이 주변을 감싸더니 신속하게 게임이 진행되기 시작한다. 동시에 같이 일어나거나, 눈치를 보느라 자리에서 못 일어날 때면 주변의 폭소가 터진다. 구경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참여해보니 심장이 쫄깃하다고 누군가 후기도 남긴다. 시계, 향수, 커피상품권 등 다양한 선물들이 계속 주어지자 게임은 점점 달아올랐다.

더 씩씩하게, 더 밝게

오늘의 마지막 게임은 룰렛 돌리기다. 상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선착순으로 나와 순서대로 룰렛을 돌려 '꽂'과 '상품'을 선택하는 것. 첫 번째로 룰렛을 돌린 직원이 뜻밖에 당첨되자 환호가 터진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연거푸 꽂이 나오자 모두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한다. 그 와중에 직원 하나가 룰렛을 아주 조금만 돌리자 이번에는 폭소와 아유가 쏟아져 나왔다. "실망했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교도관들다운 외침에 다시 와르르 웃음이 터진다.

결국 절반이 넘는 숫자가 상품을 타가면서 오늘의 즐거운 이벤트가 마감됐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 이 행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업무가 워낙 바쁘니 또 하나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모여 같이 먹고



게임을 하니 정말 힐링의 시간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상품을 받고 활짝 웃는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정말 흐뭇하더라고요. 이런 행복을 선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희순 교감의 말에 흐뭇한 미소를 짓던 민원과 조택현 과장도 이야기를 보낸다.

"이렇게 본부에서 일부러 교정 1번지 서울구치소를 찾아와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열심히 교정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더 즐겁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구치소 민원과는 일 잘하는, 매우 밝은 분위기로 정평이 나 있는 조직이다. 하루에 10km를 걸어야 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부터, 하루에 수백 명씩 상대해야 하는 직원들까지 업무량과 난이도는 결코 만만치 않지만 직원들의 얼굴에는 늘 밝은 미소와 배려의 따뜻함이 서려 있다. 그 이유를 궁금해 하면 모두가 공통된 이야기를 한다. '너와 나의 일을 구분 짓지 않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열 일을 제쳐두고 달려가는 동료' 덕분이라고 말이다.

하루 24시간, 수용자와 민원인들을 위해 헌신할 준비를 마친 이들을 위해 아주 작은 선물을 준비한 교정본부. 돌아오는 길이 감동되었던 이유는 이 작은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으로 받아들여준 밝고 맑은 그들의 품성 덕분이 아니었을까?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은 교정인 봉사 동호회는 맨 뒤 페이지에 마련된 엽서 또는 우측 QR코드, 아래 메일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교정 · 교화의 중심! 자부심과 동료애로 언제나 함께합니다

군산교도소 사회복귀과의 '영화같은 하루'

대한민국 교정기관에 그 어느 쉬운 과가 있으리라는 사회복귀과는 그중에서도 좀 더 특별한 위상을 차지한다. 단순 구금과 관리가 아닌, 교정 · 교화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교도관들에게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지우기 때문이다. 군산교도소 사회복귀과는 적은 인원으로 그 어려운 임무를 제대로 해내고 있는 부서. 모두가 뚝뚝 뭉쳐 서로의 힘듦을 알아주고 챙겨주는 그들에게 교정보부가 '영화같은 하루'를 선물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철균 교도, 공현철 교감, 오성훈 교위, 김태원 교감, 홍윤기 교위, 이병권 과장(교정관), 한두희 교감, 오병화 교위, 김용철 교위



힘들지만 서로가 있어 다행인 우리

업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바쁘게 내려간 군산교도소는 오전의 분주함은 한 템 내려놓은 모양새다. 많이 따뜻해진 날씨와 뉘엿뉘엿 저가는 햇살 덕분에 온화하고 여유로운 '영화같은 날'이라는 느낌이 솔솔 다가온다.

어느 소나 마찬가지로지만 사회복귀과는 일이 많고 힘든 부서로 유명하다.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일을 해도 밖으로 표시가 나지 않으니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큰 보람을 찾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과에 특정된 임무가 그렇다고 해서 소속된 직원들 마음까지 그런 건 아니다.

군산교도소 사회복귀과의 이병권 과장은 그 누구보다 뜨끈한 마음으로 사회복귀과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않는 인물이다.

“일선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게 우리 사회복귀과 멤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만남은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이에요. 언제나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는 직원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좋습니다.”

사회복귀과 직원은 총 11명, 당직과 업무로 2명이 빠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이병권 과장의 말에서는 진심이 푹뚫 묻어 나온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다 함께 일터를 빠져나와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기로 한 쇼핑몰로 향했다. 9명의 직원들이 즐길 저녁 식사는 양식이다. 돈가스, 피자, 스파게티 등 서울에서 유명세를 얻은 맛집이 군산에다가 분점을 낸 곳이다.

사회복귀과의 평균 연령은 얼핏 봐도 꽤 높다. 수형자를 상대해야 하는 업무다 보니 연륜과 경험은 무엇보다 필요한 능력. 오랜 교도관 생활로 노하우를 갖춘 직원들이 모이다 보니 평균 연령이 살짝 올라간 것이다. 이들이 과연 양식을 즐길 수 있을까? 약간의 우려가 양념처럼 곁들여진다.



알아서 챙겨주는 사이 좋은 우리 사회복지과

그러나 걱정도 팔자. 이들이 모여서 피자와 스파게티, 돈가스, 샐러드 등을 즐기는 분위기는 아주 특별해 보였다. 특히 이 상황을 신기한 것은 임철균 교도이다. 첫 발령으로 이곳에 온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 그동안 몇 차례 회식을 했지만 '고기' 아니면 '회'로 매우 아재스러운 회식만을 했던 것. "그동안 모여서 회식을 하면 고기를 굽거나 회를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는 게 당연했는데 선배님들과 스파게티, 피자를 먹으니가 신기하고 기분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하하."

내친김에 막내인 임철균 교도와 이야기를 좀 더 나눠 보았다. 원래 부서 얘기는 막내와 나누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법. 혹시 색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은밀한 기대감도 솟아오른다.

"이곳은 제게 첫 발령지예요. 일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군산교도소 사회복지과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왔었죠. 과 분위기는 좋은데 일이 워낙 많아 여유롭게 직장생활을 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바로 윗 선배님이라고 해도 경력이 11년 차나 되니 많이 어렵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철균 교도는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막내인지라 도움을 청하는 말 한마디도 건네기가 어려운데 알아서 척척 도와주는 선배님들, 평소 말수가 적고 점잖으시지만 누구보다 직원들을 아끼는 과장님. 직급 여하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의 일을 돕는 이 분위기가 더없이 좋다는 것이다.

오늘 이 만남은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이에요. 언제나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는 직원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좋습니다



우리의 진짜 영웅을 만나다

화기애애, 웃음꽃이 가득 피었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두 영화관으로 이동했다. 영화관에 도착한 홍윤기 교위가 "오늘 저녁은 정말 특별하고 맛있었다. 교도관으로서 정말 못 잊을 귀한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수줍게 귀땀을 한다. 군산까지 내려온 보람이 새록새록 피어나는 순간이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선택한 영화는 <항거 : 유관순 이야기>다. 갓 개봉해 흥행 1위를 달리고 있는 <캡틴마블>이 아니라 <항거 : 유관순 이야기>를 선택한 것이 이채로웠는데 모두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사실 <캡틴마블>을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1절 100주년을 맞아 의미 있고 뜻깊은 영화를 보자, 하는데 모두가 의견을 모았죠. '캡틴마블'은 상상 속의 영웅이지만 '유관순'은 생존하는 우리의 진짜 영웅이잖아요."

'영화같은 하루'에 사연을 보내온 김태원 교감이 <항거 : 유관순 이야기>를 선택한 뒷이야기를 들려준다. 드디어 영화 시작 시간이 됐다. 개인 사정상 영화를 함께 못 보는 직원들이 자리를 뜨고 7명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극장 안으로 사라진다. 손을 흔들며,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흡족하고 맛있는 뒷모습이었다.

약 2시간 뒤, 영화가 끝났겠다, 싶은 시간에 김태원 교감이 전화를 걸어왔다. 영화를 본 소감을 듣고 싶다고 미리 부탁을 한 덕분이다.

"여보세요?"라고 응답했으나 폰 저 너머로 쉽사리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영화 잘 봤습니다. 무어라 말해야 할지... 엔딩 크레딧이 올라 가는데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멍멍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나라를 위해 싸우신 저분들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정말 실감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들 모두가 같은 마음입니다."

함께 누리는 즐거움에 깊은 깨달음까지 얻은 군산교도소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하루, 오늘 하루는 정말, 영화같은 하루였다.



Mini Interview

색다른 행복을 추억으로 삼고 갑니다

군산교도소 사회복지과 김태원 교감

각자 맡고 있는 업무가 많아 하루가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돌아가는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불평을 이야기하는 사람 없이 즐겁게 일하는 과거 바로 우리 부서이기도 하지요. 그동안의 틀에 박힌 회식이 아니라, 힐링도 하고 특별한 음식도 먹고 문화생활도 함께 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화이팅!

'영화 같은 하루'는 가족, 친구, 동료 등 소중한 분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맨 뒤 페이지에 마련된 엽서 또는 우측 QR코드, 아래 메일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p>참여 신청 메일 주소</p>	<p>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p>	
------------------------	---	--



새로운 사람과 관계 형성하기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절반 이상이 새로운 사람과 친분을 쌓으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만큼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번 호 <교정>에서는 새로운 만남이 필요한 직장인들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위해 올바르게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 내린 바 있다. 이 말이 맘에 들던 그렇지 않던 분명한 사실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 속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개인주의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말 두렵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만들어 가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친해지는 것일까? 그리고 누군가와 친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친분을 형성해 가는 데도 그에 맞는 방법이 있는데,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상대에게 적절하게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친한 관계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서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따라서 관계를 잘 맺는 첫 번째 비결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다.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며 진심을 나눌 때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상대의 호응을 살피며 적절한 페이스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오늘 처음 업무 관계로 만난 사람한테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친구와의 사생활 이야기 등 상대는 궁금하지도, 그렇다고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멀리하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서로 같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상대의 호응에 따라 차근차근 드러내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자신이 드러내는 만큼 상대가 드러낼 때 편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대와 주고받는 것이 비슷해야 한다

만날 때마다 이것저것 사달라고 요구하면서 자기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으려는 친구, 평소 연락도 안 받다가 힘들 때만 찾아와 자신의 얘기만 털어놓고 내 얘기는 안 들어주는 친구,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받으려고만 하는 친구 등과 같은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

아마 그 관계는 오래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아니 어쩌면 한 번의 만남에서 관계가 끊길 수도 있다. 이렇듯 인간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비슷해야 유지된다. 여기서 주고받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쪽이 돈을 많이 써도 상대방이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 주고받는 것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요인도 포함된다.



셋째,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공평해야 한다

“우리는 맞벌이인데 남편은 집안일을 안 해서 죽을 맛이예요.”

“힘들게 돈을 벌어서 주는데, 전업주부인 아내가 집안일을 잘 안 해서 불만이죠.”

“이번에 팀 프로젝트로 팀원들과 나눠서 일했는데, 나만 고생하고 점수는 똑같이 받았으니 화가 나죠!”

사람들은 공평하지 못하고 나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낄 때 화를 낸다. 이러한 공평성의 원칙은 관계 만족에 직결되는데, 룸메이트로 함께 지내는 친구, 연인, 부부,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사이가 자주 싸우는 이유는 일상에서 공평하지 않은 순간들에 자주 부딪히기 때문이다.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함께 일을 할 때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자. 혹시 함께 한 일에 상대가 더 많이 기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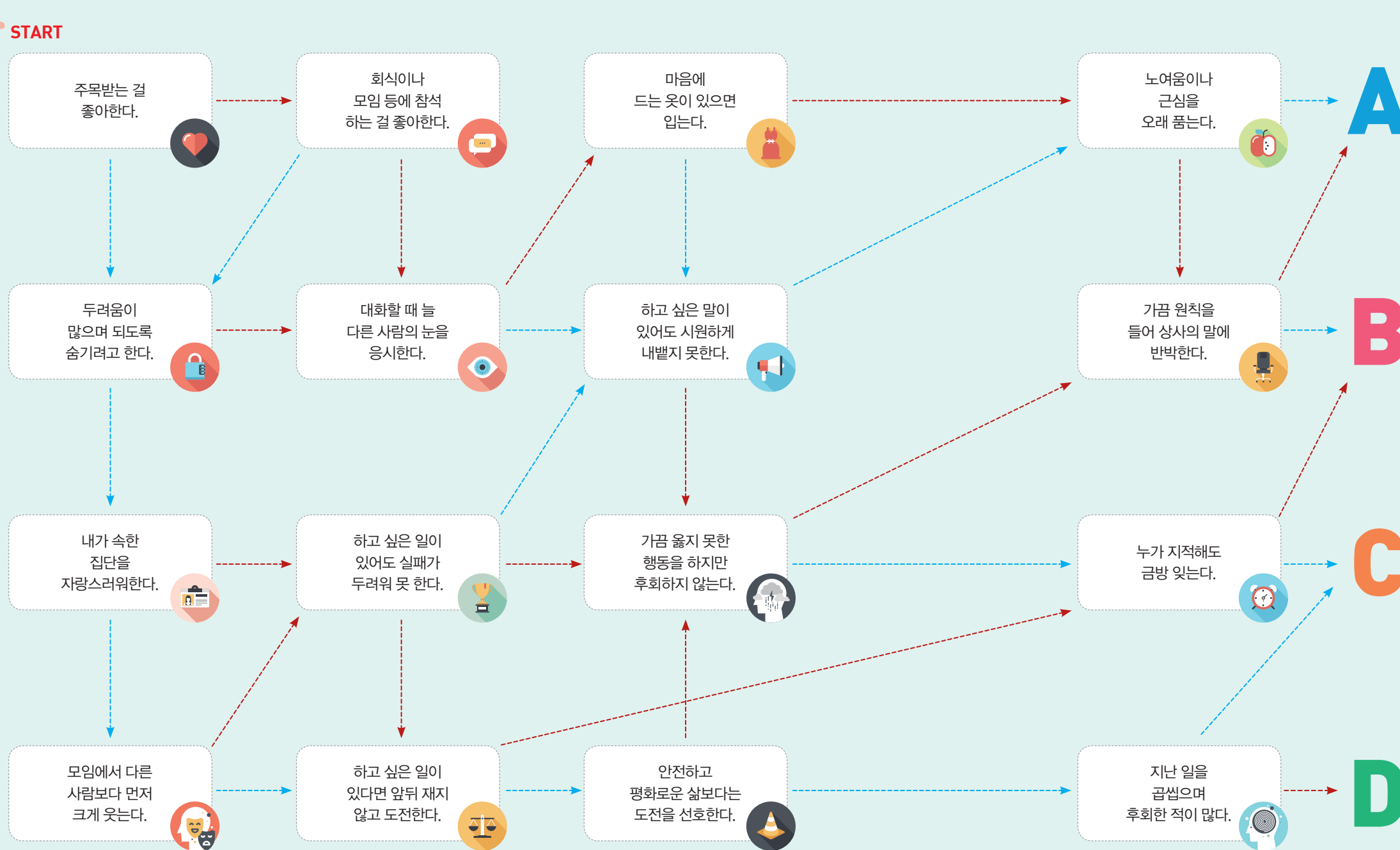


당신의 자부심은? 🏆

→ YES
→ NO

자부심을 가져야 스스로가 당당하고 멋있지만 과한 자부심, 즉, 자만은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갈리는 자부심과 자만심. 당신의 당당함은 타인에게 어떻게 비칠까? 우리의 자부심을 가능해보자.

참고서적 <마법의 심리테스트>(나카지마 마사미, 이젠), <내가 말하는 진실, 내가 모르는 본심> (매릴린 케이건 외, 전나무숲), <거짓말의 비밀>(그레고리 하틀리 외, 북노마드)



자부심 100% 부심쟁이!

언제 어디서든 자부심이 넘치는 당신. 모든 일에 프로 정신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며 자기가 맡은 일 역시 완벽하게 끝내곤 합니다. 매사 똑 부러지게 일을 처리하는 당신은 늘 능력자라는 칭송을 받습니다. 본인 역시 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으며 더 발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지요. 다만 가끔은 자부심이 지나쳐 뒷담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자부심 70% 근자감쟁이!

본인의 능력치와 한계를 정확하게 아는 당신. 눈치가 빠른 만큼 자부심도 상당한 편입니다.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주변 분위기 또한 잘 파악하지만 가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나오곤 합니다. 이유 없는 자신감으로 자기에 역시 남다른요! 지금보다 완벽한 자부심을 위해서는 자기 계발이 필요 합니다. 지금과 같은 과한 자부심은 넣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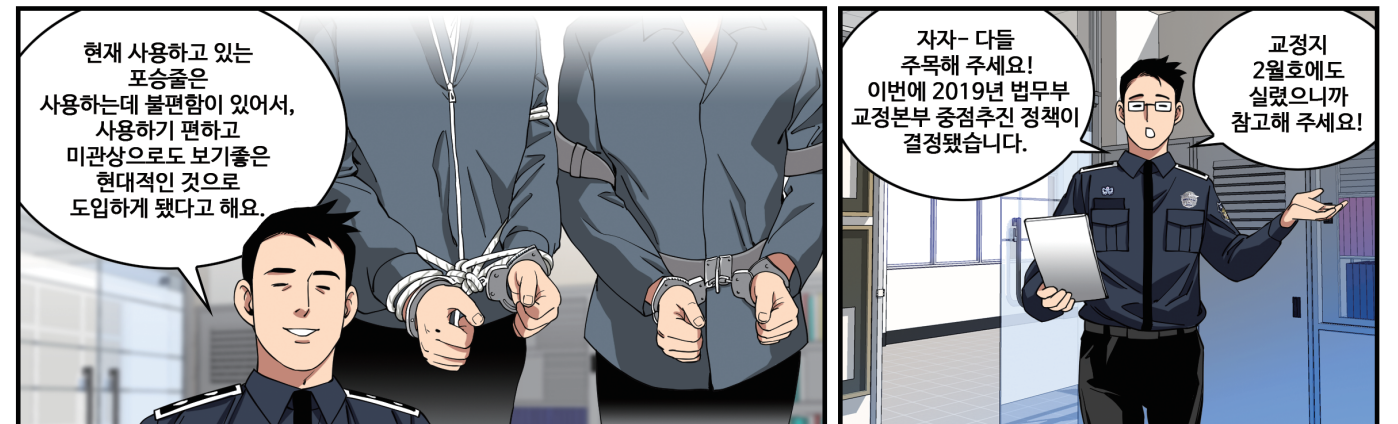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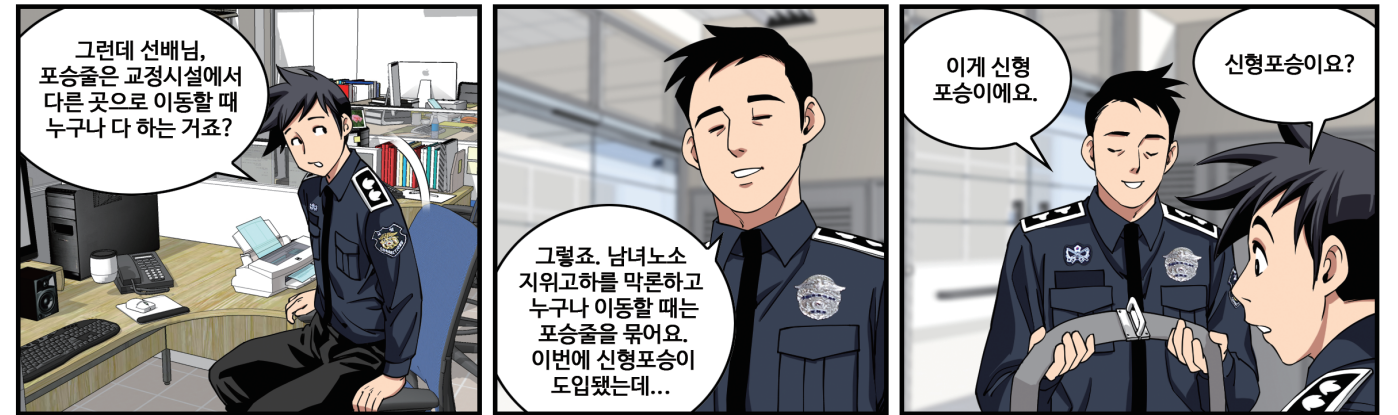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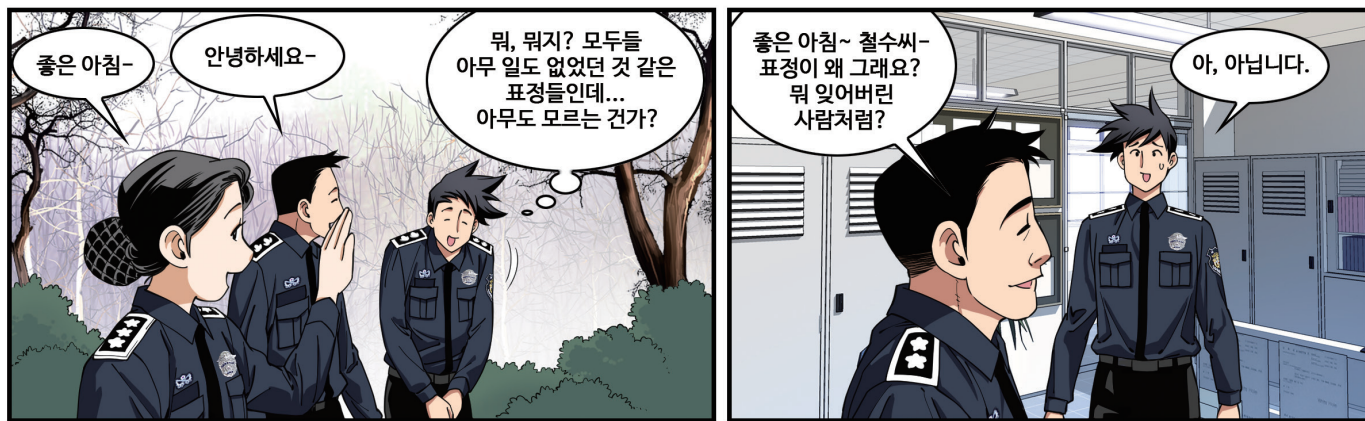
자부심 50% 어중간쟁이!

능력보다 자신감이 없는 당신. 자신을 너무 야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스스로를 낮춰 평가하니 자기에는 물론 자부심까지 점점 낮아지는군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높은 스펙도 능력도 아닌 스스로를 칭찬하고 사랑하는 시간 입니다. 조금 더 자부심을 가져보세요.

자부심 30% 소심쟁이!

셀프 디스의 달인이 여기 있었군요. 자신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자신 없애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다 여기기 일쑤 입니다. 또 매사에 자부심이 부족한 행동으로 임하다 보니 일할 때도 자신감은 커녕 불안해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스스로를 불신하니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믿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거울 앞에 달려가 가슴을 펴고 생각한 바를 이야기하세요.

현재로 돌아온 철수



세계 3대 미항(美港)도시 시드니 관광지 4 + 식당에서 필요한 영어 표현

Sydney

위치 호주 동부
인구 5,131,326명
면적 12,367 km²
언어 영어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비행시간 최소 10시간 10분 소요
한국과의 시차 +1시간

소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와 이탈리아 나폴리에 이어 세계 3대 미항으로 손꼽히는 호주 시드니는 호주에서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명은 영국의 식민지 지배 시절 영국 각료 '시드니 경'의 이름에서 따왔다. 호주의 남반구에 위치하며 대자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항구도시이다. 여행 시 유의사항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관광 비자 발급이 필수라는 것, 둘째는 남반구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와 계절 주기가 달라서 여행 일정을 계획할 때 호주 현지 날씨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 참고로 3월은 호주에서는 '가을'로 일교차가 적고 온화한 날씨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여행 시즌이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20세기를 대표하는 현대 건축물로 요트의 돛과 조개껍데기를 모티브로 한 아름답고 우아한 외양이 특징이다. 거의 매일 공연이 열릴 정도로 수많은 공연 일정이 잡혀 있는데 공연을 하지 않는 낮에는 유료 가이드 투어를 실시한다.



하버 브릿지

시드니 도심에 자리한 철제 아치교. 1932년 개통될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로 주목을 받았다. 아치 모양 덕분에 '옷걸이(The Coat Hanger)'라 불리기도 한다. 매년 3월 중순 시드니 하버 브릿지 완공 기념일 전후로 마라톤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시드니 하버 브릿지 전망대에 올라가는 것도 시드니 관광의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이다.



본다이 쿠지 비치

본다이(bondai)란 호주 원주민어로 '빛나는 바다'라는 뜻이다. 시드니 시내 남동쪽에 위치하고 높은 파도를 즐길 수 있어 서퍼들이 선호하는 해변이기도 하다. 서핑이 아닌 수영을 하려면 파도가 잔잔한 편인 북쪽 비치도 좋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수영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블루 마운틴스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산맥을 뒤덮은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증발된 유액이 햇빛에 어우러져 빛내내는 푸른 안개현상으로 '블루마운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시드니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30분가량 소요된다.

식당에서

영어회화 표현

Is there a table for 3?
세 명 앉을 자리 있나요?
When can I get the table?
언제쯤 자리가 생기나요?
Do you have a high chair?
어린이용 의자가 있나요?

Can I have the menu, please?
메뉴 좀 볼 수 있을까요?
Any recommendations?
추천할 만한 음식이 있나요?
Does this have () in it?
여기에 ()가 들어가나요?
- 싫어하는 재료나 알려지가 있는 경우

We're ready to order.
주문할게요.
I'll take this.
(메뉴판 음식을 가리키며)
저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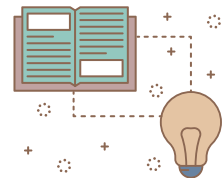
사람에 따라 다르다(사바사) & 내 마음의 만족이 우선(가심비)

신조어 '사바사'와 '가심비' 알아보기



신조어는 그 시대의 젊은 세대가 만들어 낸다. 그렇다면 신조어가 왜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은 기존의 단어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가 바로 2030세대이고, 그들은 기존 세대와는 달리 자신들만의 표현방법으로 시대를 표현하길 원한다. 이번 호에 알아볼 단어 역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기성세대 역시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표현이니 그 뜻을 알아보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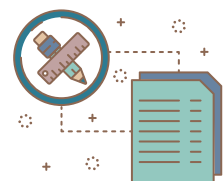
사바사



용어 해석

'케바케(case by case, 경우에 따라 다름)의 변형인 '사바사'는 '사람 by 사람'을 줄인 말로, 사람에 따라 생각이나 행동이 다를 수 있음을 뜻한다. 단어만 바꿔 넣으면 '견(犬)바견' '식(식당)바식' 등으로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 어떤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할 때 '케바케'나 '사바사'를 덧붙이면 일반화의 오류에서 벗어나 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유의어 : 케바케 =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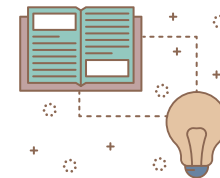
전문가 용어 진단

최근 인터넷으로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SNS 게시글이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급부상했다. 그런데 후기를 보면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케바케'와 '사바사'이다.

어떤 제품을 구매하면 소비자는 회사에서 규정한 제품 설명 사항을 그냥 넘기지 않고 오류를 낱낱이 분석하고 SNS 채널을 통해 공유하는 세상이다. 오히려 개개인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사람은 피해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지에 대한 실질적인 예를 더 드러낼수록 정보의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른바 '맞춤형 정보'시대가 온 것이다.

또한 자신이 믿고 있는 정보가 모두에게 적용될 거라는 생각은 도리어 '꼰대'라는 단어로 지탄받는다. 친구 사이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이전 경험을 조언이랍시고 얘기할 때에도 반드시 말미에 이런 말을 붙임으로써 서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사바사라 너에게는 어떻게 적용될지 몰라. 하지만 내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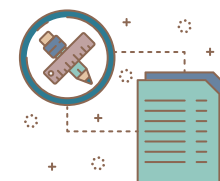
가심비



용어 해석

가격 대비 성능을 뜻하는 가성비(價性比)에 마음 심(心)을 더한 것으로 가격대비 효율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중시하는 소비 형태를 일컫는다. 가성비의 경우 가격이 싼 것을 고르는 경우가 많지만 가심비의 경우 조금 비싸더라도 자신을 위한 것을 구매한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보다 현재의 행복을 위해 좀 더 지갑을 여는 요즘 트렌드를 잘 드러내는 단어이다.

유의어 : 가성비 =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
파생어 : 나심비 = 나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 활동이 중요하다.



전문가 용어 진단

가심비는 소비를 통해 얻게 되는 심리적인 안도감과 만족감이다. 다소 비싸더라도 자신의 행복이나 즐거움을 위해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심리적 위안을 위한 비용인 셈이다.

'가심비'는 이미 2018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었고 현재에도 그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초고가 명품을 이제는 '서민들'도 구매하는 세상이 되었다. 가성비에서 가심비를 넘어 이제는 나의 심리적 만족을 위해서라면 가격에 상관없이 지갑을 열겠다는 이른바 '나심비'라는 풍조까지 생겨났다. 바야흐로 나의 만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 된 것이다.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 '가성비'에서,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가심비'를 넘어, 이제는 나의 심리적 만족을 위해서라면 가격에 상관없이 지갑을 열겠다는 '나심비' 풍조가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소비 트렌드의 중심이 '나의 만족'으로 달라지고 있다.

세계의 교정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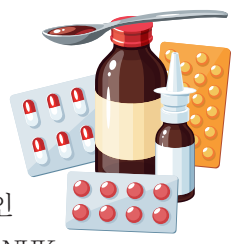
이슈가 되는 세계 교정 뉴스를 살펴보자

교정을 유심히 바라보면 이런저런 수많은 사연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정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정>지 '글로벌 핫클릭'에서는 세계 교정 관련 이색 소식을 살펴보고, 그 소식이 담고 있는 의미와 우리나라 교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한 교도소 독감 기승, 수용자 작업장 운영 중단

2월 1일 일본의 아이치현 미요시 시에 위치한 나고야 교도소에서 총 300명의 수용자와 교도관이 한꺼번에 독감에 걸린 사례가 확인되었다. 일본 최대 공영방송사인 NHK에 따르면 이곳 나고야 교도소의 수용자 205명과 교도관 95명 등 총 300명이 독감에 걸렸으며 이는 전체 수용자의 12%와 교도관의 21%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번 독감 사례는 최근 5년 사이 일본 내에 위치한 교도소에서 발생한 유행성 질병 중 가장 큰 감염규모이다. 교도소 측은 인플루엔자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수용자들 다수가 모이는 작업장 운영까지 중단시키고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는 등 독감이 진정될 때까지 그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교도소 수용자들 뜻밖의 재능 기부 '범죄 기술'로 차에 갇힌 아기 구출

2월 17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서파스코 법원 인근에서 노역 중이던 6명의 교도소 수용자들이 범죄에 사용하던 기술로 SUV 차량에 갇힌 아기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어느 한 부부가 법원 주변 야외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는데 실수로 차량 안에 열쇠를 둔 채 내려 한 살 배기 아기가 갇혀버린 것이다. 아기의 아버지는 힘으로 차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 시각, 주변에서 도로 중앙 분리대 수리 노역 중이던 수용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부부를 돕기 위해 선뜻 나섰다. 한 수용자가 세탁소 옷걸이를 길게 편 상태로 창문 틈에 밀어 넣어 단번에 문을 열어준 것이다. 결국 수용자들이 나선 지 2분 만에 아기는 무사히 구출되었다. 아기의 부모는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리며 "세계에 있는 범죄자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을 존경한다"고 전했다. 해당 수용자들에 대해 보안관은 "이들은 위험도가 낮은 범죄자들이었고 옳은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브라질, '폭동' 혼란 속 교도소 집단 탈옥

지난 1월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주에서 범죄조직 원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공공건물을 습격하고 차량 방화를 저지르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이번 폭동은 도시 40여 곳에서 무려 150여 차례 발생된 것으로 보고될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한 교도소에서는 수용자 23명이 괴한들의 도움을 받아 교도소를 탈옥한 사건이 발생했다. 브라질 당국은 이번 폭동과 탈옥 사건이 교도소에 수용 중인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들이 배후일 것으로 추측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멕시코, 악명 높은 섬 교도소 '이슬라 마리아' 폐쇄

2월 18일 멕시코의 대통령은 남미에 남아있는 마지막 섬 교도소인 이슬라 마리아 교도소를 정식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용 중인 659명의 수용자 가운데 3분의 2는 다른 곳에 옮겨 수용하고 약 200명은 석방할 예정이며, 향후 이곳에 수용된 채 '물의 담벽'이라는 책을 저술한 소설가 호세 레부엘타스의 이름을 따서 문화센터를 지을 것이라고 했다. 1905년 멕시코 마리아 마드레 섬에 설립된 '이슬라 마리아' 교도소는 오랜 세월동안 수용자들에 대한 잔인하고 야만적인 대우로 악명을 떨쳐왔다. 파나마가 2004년 이슬라 코이바 섬의 교도소를 폐쇄한 이후로는 남미의 마지막 남은 섬 교도소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관광객과 외래객이 몰려들며 오랜 세월 환경 파괴가 잇달아 폐쇄를 결정했다고 한다.





수용자와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다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공무원들에게 있어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수용자의 인권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특히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는 더욱더 그렇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이러한 면에서 지리적 특성과 첨단시설을 통해 수용자들의 인권 신장은 물론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다. 더불어 민원인들의 편리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 지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지리적 위치 변화로 편리성과 업무 효율성 상승

1977년 7월에 성동구치소로 개칭하여 2017년 6월에 송파구 법조타운으로 이전한 서울동부구치소. 도심으로 이전하면서 수용자와 교도관 모두에게 편리를 제공하게 됐다. 서울동부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약 1,400여 명(2018년 2월 20일 기준)의 미결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는 교정시설인 만큼 법조타운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우선 법원 및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인접해지면서 미결수용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동부지검 및 동부지법과 지하 호송로가 연결되어 호송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도주 등 교정사고를 보다 쉽게 예방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효율성 또한 한층 높아졌다. 지리적 위치로 인한 이러한 이점들은 수용자와 교도관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문정역과 장지역 등 가까운 곳에 지하철역이 있어 접견을 오는 민원인들도 한층 편리해졌다.

최신식 건물에서 높아지는 수용자 인권

‘여민교정’ 팀이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은 날은 한국교정학회 교수 10명의 참관 행사가 있었다. 그들은 민원실부터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화상 접견실을 견학하면서 특히 놀라워했다. 최근에는 IT의 발달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민원인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아도 수용자와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는데, 서울동부구치소의 화상 접견실은 이러한 설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학회 교수들은 민원실 견학을 마친 후 수용거실은 물론, 진료실, 체육시설, 상담실 등 부대 시설 등을 찬찬히 돌아보며 각 담당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학회 교수들은 구치소를 둘러본 후 서울동부구치소가 수용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시설이라고 생각된다며 특히 400여 개의 독거실은 개별수용 처우에 용이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동부구치소의 외관은 얼핏 보기에도 기존의 교정시설과는 사뭇 다르다. 높은 벽이나 철조망, 감시탑 등을 찾아볼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언뜻 보기엔 마치 일반 회사 건물처럼 느껴질 정도다. 이는 건물을 지을 때부터 주변과 위화감이 없는 형식으로 조성했기 때문이다. 지하 2층, 지상 10층 1개 동과 지상 12층 4개 동 규모로 2,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식 건물은 서울동부구치소의 자랑거리 중 하나이다.

막중한 업무량에도 소임을 다하는 직원들

도심 지역에 있고 첨단 시설인 만큼 우스갯소리로 타 소 교도관들은 서울동부구치소를 '꿈의 직장'이라고 부른다. 출퇴근이 편하고, 한결 깨끗해진 근무 환경이 교도관들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수용 인원이 2,000여 명인데, 교도관이 5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자를 관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또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순찰 범위가 넓고 이동 거리가 긴 점도 직원들을 힘들게 한다. 이 때문에 기동성을 높이기 위한 세그웨이 사용으로 계호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구치소 특성상 미결수용자가 많기 때문에 방대한 수용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잦은 외부 출정을 나가야 하는 것도 직원들의 업무과중으로 다가온다. 또한 하루 평균 700여 명에 달하는 민원인들을 일일이 응대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교도관을 상대로 무턱대고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을 내는 민원인들도 있는데, 그들의 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일도 결국 교도관들의 몫이다.

수용관리에서부터 민원업무까지, 서울동부구치소 직원들의 역할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이렇듯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정공무원들이 만들어 갈 더 나은 서울동부구치소를 기대해 본다.



교정공무원 mini 인터뷰

'열일'하는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공무원 인터뷰

교감(민원과) 김옥남

1년 7개월 동안 민원실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민원인들을 만나며 그들의 사정과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가족 혹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한편으로 마음이 쓰이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교감(분류심사과) 신옥재

찾은 출장과 이송, 방대한 수용기록 관리 등 구치소 업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요즘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위(총무과) 김동성

서울동부구치소의 역사 등 기록물을 수입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장관상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받은 건 아니에요. 기록물을 정리하면서 각 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동부구치소 대표로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 기록물 관리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교위(수용기록과) 이화자

수용기록과는 수용자들의 신분장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서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특성상 입출소가 많아 일이 좀 많지만, 장점도 많답니다. 서울동부구치소의 가장 큰 장점은 도심에 있다 보니 출퇴근이 쉽고 시설이 한층 좋아져 근무하는 데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오경기

학회 교수로 30년 동안 활동하면서 10여 군데의 교정시설을 가봤는데, 서울동부구치소는 일단 교정시설이라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깔끔하고 깨끗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이 생활하기에 주변 환경이나 부대시설 등이 상당히 잘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수용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수많은 민원인들의 편의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쓴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조은오

공간 활용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용자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서울동부구치소의 지리적 위치와 쾌적한 수용환경은 미결 수용자들이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동부구치소 참관 교수 소감 한마디

국민 mini 인터뷰



행복에 집중하자



『하차감』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차감이란 실제로는 없는 단어이지만 굳이 해석을 하자면 “차에서 내렸을 때 남들이 부러워하며 바라보는 시선에서 느껴지는 만족감” 또는 “있어 보이며 차에서 내린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겠다.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것에 대하여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지만 한 번쯤 깊게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과거에 비해 요즘 사람들은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궁금해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내리는 차를 더 궁금해한다. 아마도 개인의 개성보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중요시 하는 생활 풍토에서 파생되었으리라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자동차뿐 아니라 외국 사람과의 옷 입는 스타일을 비교해도 쉽게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유행을 타면 여기저기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옷을 고를 때 자기만의 스타일 또는 자기가 편한 옷을 고른다. 남들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말이다.

한편, 남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K본부의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일단 하나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젠가 82세의 ‘이발의 달인’이 소개되었는데, 경력만 67년 차였다.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허름한 건물에서 67년 동안 가위질을 쉬지 않았다는 달인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이발과 면도를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손님들의 머리를 감겨줄 땀, 연탄으로 데운 물을 밥솥에 넣어 사용하는 등 상상을 뛰어넘는 아이디어와 이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한 분야에 오랜 시간 집중을 하니, 가히 “이발의 신”이라 불릴 만하다.

같은 날 방영된 또 다른 달인이 있다. 기름기 제로의 “인생 탕수육”을 만드는 75세의 할머니이다. 여자의 몸인데다 고령의 나이로 조리부터 서빙까지 한다는 할머니는 40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식당을 운영하던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지자 마흔이라는 나이에 중식을 배워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인생 탕수육”에는 독특한 식재료가 사용되는데, 바로 맨드라미꽃과 창출, 보리잎이다. 다소 생소한 이 재료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터득한 달인만의 비법이다.

이렇게 자기 분야에 독보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일명 “고수”라고 부른다. 고수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에 집중하고, 주위의 환경을 탓하지 않으며,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한다. 반면 나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벌여 놓다 보니, 지금까지 이도저도 안 되고 어중간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고수의 비율은 전체인구의 몇 퍼센트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고수라 불리 우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어쩌면 고수는 타고나거나, 경쟁 분야에서 우리가 모를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존재가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은 고수가 될 수 없는 것일까?

인간의 존재는 소중하고, 언제 어디서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고수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았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바로 ‘행복’이라는 분야이다. 행복은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다. 그리고 서로 경쟁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행복은 조금만 집중하면 누구나 고수의 길로 갈 수 있다.

2019년 나는 행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수의 삶도 행복하겠지만 평범한 우리의 삶도 행복해야 하기에 이제부터라도 나는 ‘행복의 달인’, ‘행복의 고수’가 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즐거워하는지 돌아보았다.

나는 탁구를 칠 때가 가장 즐겁다. 가끔 아내와 단둘이 드라이브 나갈 때도 좋다. 그리고 주말에 가족들과 영화를 보며, 햄버거 하나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때가 좋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늘려 가다 보면 누구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먼 훗날 행복경력 40년 차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인생을 뒤돌아보며 미소 한가득 남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직은 날씨가 쌀쌀하다. 하지만 여기저기 따뜻한 공기가 스물스물 풍겨나고 있다. 따뜻한 봄이 오면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모두 다 행복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수필, 소설, 시 어떤 글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글이 독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우측 메일 주소를 통해 원고를 보내주세요. 월간 <교정>에 작품이 실리는 분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내 자신에 솔직해 지겠습니다

자유가 멈춘 감옥의 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저의 죄로 인해 고통받고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죄책감과 죄송함을 느끼며 수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다는 말로 제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그 말이 너무 가볍고, 보잘 것 없어서 제 마음을 모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제 자신을 원망하고 가슴 답답하게 보내고 있는 덧없는 시간이 어느덧 6개월이 되어갑니다.

3세 때 고아원에 맡겨진 뒤로 부모의 그늘 아래서 큰 걱정 없이 사는 아이들을 보며 오기인지 뭔지 모를 단순한 생각으로 오직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외도가 원인이 되어 수형생활을 하고 있으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지 못한 죄까지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 되었고 어떻게 해서 현재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없어 피해자분들께 용서받지 못하고 있지만 염치 불고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 봅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뒤로 아이 둘을 키우기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죄를 지었고, 그에 대한 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뭍혔어야 했지만, 쉽게 벌었던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돈 벌기 쉬운 것만 찾고, 계속 빠르게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고, 한 번의 거짓말이 수십 번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정당이라면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후회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5세 때부터 온갖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힘으로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고등학교에도 진학해 19세 때에는 회사에 취직해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 사회생활을

‘교정 희망의 백일장 II’는 수용자들의 수필로 엮어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를 구하는 자책의 글로, 또 때로는 출소 후 희망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의 글로 채워집니다. 순간의 실수로 범죄의 길로 들어선 수용자들이 참회하고 교화되어 출소 후 떳떳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시작하다 보니 저는 제대로 된 교육과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하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핑계에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제가 조금 더 절제했어야 했고, 기다릴 줄도, 참아야 할 줄도 알아야 했으며, 이해심과 양보도 필요했습니다.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모른 채 살아온 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의 욕심으로 인해 생긴 일들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힘들었고 피해를 키웠습니다. 어쩌면 죽기 전까지 용서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만일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면 자식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저의 죄는 끝도 한도 없이 큼니다. 어떤 말을 해도 부모 된 자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경솔한 행동을 하여 온 가족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애통하고 가슴 쓰린 일입니다.

아내의 외도를 핑계 삼아 잘못된 생각을 하고 한 번이 아닌 수십 번의 잘못을 했고, 이런 엄청난 우를 범하여 저뿐만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가족과 아이들이 불행해 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은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한 줄 압니다. 이곳에서 모든 죄값을 치를 수는 없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제 나이 스물넷입니다. 아직은 제 삶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죄값을 다 받고 나면 이 세상에 나아가도 절대 단 한 번이라도 다시는 경솔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진실로 바르고 옳게 살아가겠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교정행정조직 유관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上)*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교정행정조직과 유관기관에 대한 분석
- IV. 교정행정조직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활성화 방안
- V. 결론

◆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교정행정조직의 발전 방향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정행정조직과 유관기관은 상호 호혜적인 자원체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조직이론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교정행정조직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유관기관들의 현황, 설립 목적, 운영 방식, 기관의 특징, 기관 보유 자원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정행정조직과 유관기관 간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 조직 간 상호협력 메커니즘에 기반 한 의사소통과 자원에 대해 초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유관기관 유형 구분의 기준과 교정행정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유관기관의 세부적인 역할 분류, 지정 대상 및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정행정조직의 구체적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의 개발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업무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교정행정의 효율성 증가와 다양한 위기상황 대처에 관한 대응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교정행정조직, 유관기관, 조직 커뮤니케이션, 조직 네트워크, 사회자본

I. 서론

사회의 변화로 인한 인간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들은 외부환경체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조직을 유지 또는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활동체계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직은 조직의 성과를 위해 조직 내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이 최우선이라는 명제 하에 조직의 발전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의 원리에서 교정행정조직은 범죄인의 재사회화와 사회 복귀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구체적 목적성을 지닌 공적 집합체이다. 더 나아가 교정행정조직은 적절한 계호를 통한 범죄자의 변화 유도뿐 만 아니라 사회 안

전체계 확보를 통한 사회적 공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교정행정조직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대처 그리고 외부환경¹⁾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는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정행정은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법무부가 설치되면서 과도정부 사법부를 거쳐 법무부 형정국을 시작으로 교정행정이 출범되었다. 이에 본격적인 교정행정업무는 1949년 부천형무소, 영등포형무소가 신설됨에 따라 본격적인 교정업무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62년에 형정국은 교정국²⁾으로 개칭되었고 2007년에 들어서 법무부 교정국은 교정본부로 확대 개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³⁾

이러한 교정조직은 교정행정서비스모형을 통해 수형자의 교화 활동 및 직업훈련, 교육 등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정책 수립과 이를 일선 교정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감독을 하는 형태로 발전해 오고 있다.

특히 교정행정의 전략적인 기획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체계에 대한 패러다임은 변화, 소통과 공감, 미래에 대한 창의적 준비 등의 지향점에 기반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정행정조직의 패러다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 즉 재범률과 강력 범죄율이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다(범죄백서, 2017). 더욱이 교정행정에서 과밀 수용, 예산상의 문제와 전문 인력 부족(이영근, 2017), 효과성 분석이 미흡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은 교정행정조직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안전이 보장받기를 원하

* 본 연구는 2018년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과제)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2019년 '교정' 이번호에 실린 글은 2018년 교정연구 제28권 제4호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접수일(2018. 11. 30.), 심사일(2018. 12. 18.), 수정일(2018. 12. 20.), 게재확정일(2018. 12. 27.)

1) 외부환경은 정치경제적 상황, 인구학적 변화, 사회문화 가치적 인식의 변화, 관련된 법률 등이 있다.

2) 1962.05.21.(각령 제770호), 형정국에서 교정국으로 개칭함. 형무과는 교정과로 개칭하고, 소년과는 교정국으로 이관하였다.

3) 2007.11.30.(대통령령 제20,400호), 2007.11.30.(법무부령 제620호) 법무부 교정국의 1국 1심의관 6과에서 교정본부 1부 2정책관 9과로 확대 개편되었다. 신설과로는 사회복지지원과, 분류 처우과, 보건 의료과가 있다.

고 있다. 정무성 외(2002: 30)는 현대사회에서 개인과 사회는 해롭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들의 지위와 삶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수준 높은 공공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교정조직은 범죄인의 재범방지 통한 사회 안전에 대한 책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정행정조직의 책무역량은 공공의 협조자인 유관기관과의 활발한 상호 협력적 관계망을 확보·연계시켜 나갈 때 교정조직의 목적 달성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교정행정조직과 유관기관들의 적극적 협력체계는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역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교정조직의 발전방안을 위해 논의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교정조직 업무의 독자성 확보를 인정받기 위하여 교정청 신설에 대한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이영근, 2000; 2017; 이만중, 2007; 권해수, 2014)와 교정행정조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영근, 2002; 2003; 2017)과 교정공무원이 행하는 교정서비스를 경제적 독점재화인 교정공공재로 관념하면서 교정행정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분석한(천정환, 2011) 연구 등이 많이 있다. 이는 교정조직발전이 우리 사회의 안전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거시적 교정정책 측면에서의 혁신과 더불어 교정조직 내의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상호 시스템의 논의도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대부분의 연구는 교정행정조직 내의 발전방안에 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정조직의 성과 달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정행정환경의 복잡화, 행정서비스 수요증가, 다양화 등으로 인해 교정행정은 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행정조직의 발전적 과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호 유기적인 조직이나 민간 조직의 유용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 활발한 이해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조직 내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요소의 자본⁴⁾이 늘어날수록 조직 내의 조직 몰입도와 성과 목표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김정인, 2016: 274).

본 연구는 교정행정조직의 발전 방향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정행정조직과 유관기관은 상호 호혜적인 자원체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조직이론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현재 교정행정조직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유관기관들의 현황, 설립 목적, 운영 방식, 기관의 특징, 기관 보유 자원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행정조직과 유관기관 간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 조직 간 상호협력 메커니즘에 기반 한 의사소통과 자원에

대해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현대사회의 조직

현대사회에서의 조직은 사회적 목적 달성이라는 사명에 따라 작동되는 구조적 배열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유중해/이덕로, 2015: 5). 이로써 현대조직의 정의는 설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고 이에 따라 조직의 기능이나 역할이 다르게 운영된다.⁵⁾ 다시 말해 조직이란 그 집단에서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직무를 편성하고 책임과 권한에 대해 상호 협력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이영근, 2015: 9). 더 나아가 조직의 본질을 보는 관점으로 첫째, 조직의 규모, 둘째, 상호의존적인 행동 양식의 집합, 셋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 넷째, 환경으로부터의 사회적 자원 획득, 다섯째, 커뮤니케이션, 여섯째, 성과 산출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기능 분화와 의도된 합리적인 협동 그리고 시간성 및 지속성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의도된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 조직을 정교하게 분류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조직을 '움직이고', '관리하고', '경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 구성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 체계를 나타내는 것이다(오두범, 2004: 49). 조직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형식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⁶⁾으로 구분된다(오두범, 2004: 19). 조직은 수행하는 기능이나 목적 혹은 활용하는 전문적 기술과 지식, 이익 수혜자에 따라 조직의 유형⁷⁾은 분류되기도

4) 사회적 자본요소는 상호신뢰, 호혜적 규범과 가치, 개방형 소통, 수평적 관계 등을 말한다(김정인, 2016).

5) 조직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분업과 통합의 활동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회적 단위를 의미한다(행정학 전자사전, 2018). 또 다른 정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해가도록 협동해 나아가는 체계라 한다(조직의 정의, 두산 백과사전). 사회학에서는 조직을 공식조직 혹은 복합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인간노력을 조정하여 연대성을 확보하고 제고하려는 모든 단체들의 공통 특징이라고 말한다(사회학 전자사전, 2018).

6) 공식조직(formal organization)은 일정한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도, 정관, 내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체계인 반면 비공식 조직(informal organization)은 공식 조직구조와 전혀 다른 것은 아니고 공식 조직과의 관련하여 부분적으로는 별개로 형성되어 있지만 인간의 개인 간 접촉 혹은 상호작용을 형성하기 위해 조직되어진 자연적으로 생겨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7) 이와 같이 조직의 유형화를 좀 더 분류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영역을 공공조직, NGO 조직, 민간조직으로 대별할 수 있다. 모든 공공조직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 운영을 위한 세금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조직은 비영리 부문이라 하는데 정부조직, 자선단체(Oxfam, World Vision, Christian Aid 등), 준자치비정부조직(QuANGOs: Quasi-Autonomou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가 있다. NGO 조직은 공익을 추구하고 정관, 회칙을 가지고 있으며 자치성, 자발성, 사적과 비정부적인 성격을 가진다. 민간조직은 국가가 지배하지 않으며 비법인 조직과 법인조직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되며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한다(이영근, 2015: 12-19).

한다. 조직 유형이란 조직의 다양한 측면 및 속성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따라 분류되는 조직의 범주라 할 수 있다(민진, 2014: 45). 즉, 조직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이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조직의 기능이나 특성을 보다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조직의 특성을 조직의 대규모화, 복잡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직의 대규모화 현상은 경제발전에서 따른 인간의 높은 생활수준 욕구, 과학기술화로 인한 작업의 전문화 및 대량화를 의미한다. 이 뿐만 아니라 최첨단 정보통신 발달로 의사소통과 통제방법의 기술로 인한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조직의 복잡성의 원인은 과거에 비해 인간협동에 대한 방식과 조직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에는 법률주의적 관계가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면 오늘날에는 자율적 지원이나 자의적 지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다. 현대조직에서는 현대사회의 문화적인 가치 변화를 수용하게 되면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원화를 수용하고 있다(유종해/이덕로, 2015: 8-9).

일반적으로 조직유형은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모형으로 나눈다(Hall, 1991, 재인용). 또 다른 차원의 조직유형으로는 단일차원과 다차원 방식의 기준으로 구분된다. 다시 말해 단일조직 차원의 기준으로 첫째, 공동체 조직 및 기능체 조직, 둘째,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 셋째, 자원적 또는 자발적 조직과 직업조직, 넷째, 국내적 조직과 국제적 조직, 다섯째, 독립조직과 부문조직, 여섯째, 경제조직, 정치행정조직, 사회조직, 문화조직, 일곱째, 의존조직과 자족조직 등이다. 반면에 다차원 조직유형 분류 기준은 자원성과 이윤성으로 구분되는데, 자원성과 이윤성⁸⁾이 높은 조직, 이윤성이 높고 자원성이 낮은 조직⁹⁾, 자원성이 높고 이윤성이 낮은 조직¹⁰⁾, 그리고 자원성과 이윤성이 모두 낮은 조직¹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민진, 2014: 47-52).

조직 기준 분류	단일차원 기준 적용	다차원 기준 적용 (자원성과 이윤성으로 구분)
조직 유형 분류	① 공동체 조직 및 기능체 조직	① 자원성과 이윤성이 높은 조직
	②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	② 이윤성이 높고 자원성이 낮은 조직
	③ 자원적 또는 자발적 조직과 직업조직	③ 자원성이 높고 이윤성이 낮은 조직
	④ 국내적 조직과 국제적 조직	④ 자원성과 이윤성이 모두 낮은 조직
	⑤ 독립조직과 부문조직	
	⑥ 경제조직, 정치행정조직, 사회조직, 문화조직	
	⑦ 의존조직과 자족조직	

〈표 1〉 조직유형 기준과 분류 출처: 민진의 조직유형 기준과 분류를 참고(2014: 47-52).

2. 현대교정행정조직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현대사회에서 교정행정조직과 유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¹²⁾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첫째, 정보에 대한 공유의 의미로서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둘째, 상호 간의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의도적 영향을 미치는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이다. 세 번째로 인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과 모든 환경 그리고 비언어적인 관계를 포함한 포괄적 커뮤니케이션¹³⁾을 의미한다(오두범, 2004: 32). 이러한 개념은 교정조직 내 또는 유관기관 간의 상호 신뢰관계 형성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정행정조직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개방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형성된 조직 네트워크¹⁴⁾는 네트워크 유형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만족도, 권한의 집중도, 의사소통의 속도나 정확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백기복, 2002: 281). 이러한 조직 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유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간 상호 신뢰 등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이로써 교정행정조직은 유관기관과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비로써 서로 간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며 동반체적인 관계가 지속 유지 될 수 있다. 즉 조직 간의 중요한 정보 및 자원 공유, 충분한 토의, 피드백을 통한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될 경우 조직 간의 의존성은 증가되어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게 된다(김정인, 2016: 272). 긍정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의 경쟁력과 이익 발생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조직이 외적 환경의 위협에 노출 되었을 때 공동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조직 내 구성원간의 광범위한 인간적인 협동과 의사소통 방법을 발달하게 만들어 결국은 교정행정조직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정행정조직과 유관기관 간에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측면은 교정조직의 효과적인 행정관리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정행정조직은 교정업무의 효과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의사소통 관점에 근거한 효율적 소통을 강조한 전략을 두고 있을 것으로 본다.

- 8) 이익결사체 조직.
- 9) 회사조직.
- 10) 이익결사체 조직.
- 11) 정부조직.
- 12) 세버린과 텐커드(Werner J. Severin, & James W. Tankard, Jr., 1979)는 커뮤니케이션은 첫째, 나눔, 둘째, 의도적 영향, 셋째, 모든 종류의 반응과 영향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강조한다.
- 13)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을 더 정리하면 설득적, 정보적, 비언어적 측면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오두범, 2004: 34).
- 14)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경로의 구조를 의미하는 말로서 Y형, 사슬형, 수레바퀴형, 완전연결형 등이 있다(인적자원관리용어사전, 2009).

3. 조직과 사회 자본과의 관계: 조직의 성과달성을 위한 사회자본

교정행정조직의 최대 목표는 성과 달성이다. 교정행정조직의 성과수립은 조직의 이득을 생산하기 위한 필요한 사회 자본을 얼마나 획득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정행정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력, 기술, 클라이언트, 공공의 지원 및 예산까지 생산적인 기획의 지표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교정행정 조직의 성과는 관리자의 가치, 목적추구, 조정된 프로그램 평가 및 분석, 자원 및 자본 활용에 대한 기록 및 모니터링, 명료화, 클라이언트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한 집합적 관리¹⁵⁾에 의해 조직의 성과가 보장된다(Charles A. Rapp & John Poertner, 1992.; 정무성/박차상 역, 2002: 23-25).

그렇다면 교정행정조직의 성과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 요소 중 사회 자본 활용은 교정조직의 효율적인 행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구성 요소일 것이다. 푸트남(Putnam, 1993)은 사회 자본은 조직 간 신뢰,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 등과 같은 상호 이익을 위한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자원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정인, 2016: 270, 재인용). 이러한 사회 자본은 조직 간의 사회자본 관계와 조직구성원들 간의 사회자본 관계로 구분될 수 있다. 조직 간 사회자본 관계는 둘 이상의 조직 간에 이동, 네트워크, 자원의 거래 등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관계를 의미하고, 조직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둘 이상의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동, 연결, 자원의 거래를 말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자본의 차원에 대해서도 거시적 차원, 중범위 차원, 미시적 차원(신광철 외, 2010: 71)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거시적 차원의 사회 자본은 조직 상호간 이익을 위하여 협력과 협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개방적 소통, 사회적 신뢰, 규범 등이 중요한 구성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중 범위 차원에서는 하나의 실체가 아닌 사회구조의 특정 기능과 집단과 개인의 행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실체라 정의할 수 있다. 미시적 사회자본의 정의는 평소에도 상호 유대감과 상호 간의 관계가 지속되어져 형성된 네트워크로 인하여 얻게 되는 잠재적 또는 실제적인 자원이라고 하였다(Bourdieu, 1986; Coleman, 1988; Putnam, 1993; Draft, 2016: 194, 재인용).

김정인(2016: 271)은 유관조직 간의 연계 유형화로 인한 호혜적인 규범과 신뢰 환경의 활발한 조성은 조직 간 정보의 획득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교정행정조직으로서도 효과적인 유관기관의 자원 동원이 가능하게 되므로 조직 간의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직 간 공동의 관심은 조직의

합의된 목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게 된다. 이로써 교정조직과 유관기관 간의 상호 규범적인 관계는 조직이 지향하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효율성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정행정조직 내에서 사회자본의 개념이 조직 안에서 증가할수록 조직 간에 상호 신뢰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직 간 활발한 정보의 이용이나 획득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질 때 조직의 효과성은 유의미한 결과를 달성시킬 수 있다(김정인, 2016: 270-271). 그러나 조직 간 폐쇄적이거나 배타적¹⁶⁾인 관계가 형성될 경우 각 조직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하여 유용한 사회 자본을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조직의 성과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Olson, 1982).

III. 교정행정조직과 유관기관에 대한 분석

1. 교정행정조직 구조¹⁷⁾

1) 중앙기구

교정행정조직인 교정본부를 관리하고 총괄하는 중앙기구는 법무부이다. 교정본부는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차관 아래에 있으며 교정행정조직을 총괄하는 교정본부장은 교정행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교정본부장 밑으로 교정정책담당장과 보안정책담당장을 두고 있는데 교정본부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교정행정조직에는 각 소관업무에 관한 교정정책을 수립하는 교정기획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직업훈련과, 보안과, 의료과, 심리치료과, 분류심사과 등 8개의 과가 운영되고 있다.

2) 지방교정청

지방교정청은 교정행정 조직 내 소속기관 업무집행의 지휘감독을 관장하는 중간 감독기관으로서 1991. 11월부터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지방교정청에는 분류센터와 전산관리과를 별도로 두고 있다. 부속기구로 총무과, 보안과, 사회복지과가 있다.

3) 교정기관

현재 전국에 교도소 39개 기관, 구치소 11개 기관, 지소 3개 기관 등 총 53개의 교정기관이 있다. 이 중 민영교도소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부속 조직기구로는 교도소 및 구치소 공동부서인 총무과, 사회복지

15) 조직 관리자의 책임에는 조직원에게 정보 체계 구축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정무성/박차상 역, 2002: 23-25).

16) 배타적 사회 자본은 조직 내의 구성원들의 일탈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폐쇄적인 조직 간의 관계는 상호 간 거래비용에 대한 신뢰 구축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는 오히려 조직 간 사회적 비효율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Coleman, 1988; 김정인, 2016: 271).

17)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2018), 교정본부조직.

귀과, 직업훈련과(수용기록과) 복지와 및 의료과, 보안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 기관의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출정과, 분류심사과, 시설과, 국제협력과, 민원과 등이 있다. 교도소는 수행자 형 집행 업무 및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사무 및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업무를 하며 구치소는 주로 미결수용 업무를 처리한다.

2 교정행정조직과 관계 조직

1) 유관기관¹⁸⁾ 현황

공공의 조직에서 공동의 목표 혹은 유사한 목표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련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조직은 사회적으로 보다 높은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떤 특수한 사회적 목적을 행하고자 할 때 관련이 있는 조직과 조직 간의 상호 협력과 소통은 개인과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Drucker, 2001: 31, 재인용). 더욱이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조직 간에 공공의 이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중시한 상호 협력 파트너 십의 필요성을 추구한다(박성수, 2004). 교정행정조직과 업무적으로 관련성 있는 대표적 유관기관 중 가장 중요한 조직은 형사사법기관이다. 교정행정조직과 형사사법기관¹⁹⁾은 필수불가결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현재 구치소 및 교도소 등 전국의 53개 교정시설의 수용자는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54,512명으로 수용정원 47,820명 대비 수용정원을 무려 6692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의 수용자 증가로 인한 수용자 과밀화 문제는 인권침해, 폭력 등으로 이어져 2011년부터 매년 약 900건이나 발생하고 있다(2018년 국회법무부 국정자료)²⁰⁾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고 5년에서 7년 이내에 일인당 2.58m²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여전히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교도소, 구치소 등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속수사 축소, 벌금형 적용 확대,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제도 완화, 각종 유예제도활용²¹⁾ 등 여러 형사사법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내외신문, 2018)²²⁾

수사는 불구속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동아일보, 2017). 따라서 교정시설 내 수용자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형사사법 적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역시 교정행정조직과 상당히 중요한 관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정행정조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교정시설 과밀화 현상과 낙후화²⁴⁾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정시설의 신축이나 증축을 통해 해소할 수 있겠으나 지역주민이

나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교정시설 중 심각한 낙후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안양교도소와 창원교도소, 부산구치소 등이 있으나 진행 상황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교정시설 환경은 수용자의 교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정환경 개선은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교정시설의 과밀화 및 낙후 현상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보면 지난 1973년 준공된 부산구치소 경우 2016년 수용자 사망률이 전국 최다를 기록되고 있다(2018년 법무부 국정감)²⁵⁾ 이러한 수용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행정조직은 각 시도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긴밀한 협의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출소자, 소년범 등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범법자 재범방지 및 비행예방 기능을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보호관찰은 교정행정조직과 유기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출소한 범죄자가 보호처분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전자 감독 등의 사후관리로 보호 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행정조직업무와 관련이 높는데 수용자 인권뿐 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인권 보장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건수를 보면 2013년 2,303건, 2014년 2,249건, 2015년 2,000건, 2016년 2,093건, 2017년 2,35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2017 국가인권위원회

18) 유관기관은 교정행정조직과 업무협조 관계를 의미한다.
 19) 형사사법절차는 사법경찰의 수사단계 → 검찰의 기소단계 → 법원의 판결단계 → 법의 집행 단계 → 교정시설(구치소, 교도소) 입소 또는 보호관찰 명령 등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20) 2018년 국회법무부 국정자료, 주광덕/이원영 자유한국당 위원. 신이일보, 2018. 09. 25. '교정시설서 매년 900여 건 사고, 과밀수용 해결해야'
 21) 선고유예·집행유예를 의미한다.
 22) 내외신문, 2018. 10. 10. '교정형, 교도소 수십 년째 초과 수용 증 심각한 인권문제, 헌법재판소 판단도 무시.'
 23) 동아일보, 2017. 11. 24. '법원도 검찰도 불구속 수사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
 24) 지난 8월 기준 국내 교정시설 정원은 약 4만7,000명이지만 실제 수용인원 5만 4,000여 명으로 수용률이 115%에 달한다. 특히 수용률이 130% 이상인 구치소는 인천(134.6%), 서울(130.9%), 부산(130.4%) 등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교정기관을 중심으로 수용률이 높다(2018년 법무부 국정감사,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분석자료). 매일경제 2018. 10.12. '담장 교도소 인권침해'
 25) 2018 법무부 국정감. 교정기관 수용률에 대한 문제제기 및 환경 개선 촉구. 부산구치소 사망률 전국 최다, 과밀수용 대책 필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질의. 프레시안. 10. 22.

통계, 교정행정조직과 구금·보호시설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현황 표). 반면 교정공무원의 경우 수용자에 의한 인권 침해와 폭행당하는 사례도 2017년에 약 24건 넘게 발생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2018년 국회 법무부 국정감)²⁶⁾ 이로 인해 교정공무원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위험 군으로 분류될 정도로 열악한 교정업무 환경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 건강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7 교정본부 실태조사). 한편 교정행정조직과 공익 활동을 위해 상호 관련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관계조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있다.²⁷⁾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교정학회, 교정공제회, 교정동우회,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아가페,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 협의회, 아시아교정 포럼 등이 있다. 이들 조직들은 서로 간 조직의 목표, 조직 환경, 조직 구조, 조직행태 등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추구하는 목표가 상당히 같다.

특히, 공공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공단은 국가의 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조직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해당된다. 이들 공단의 역할은 첫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와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사회적 분위기에 맞는 법률복지 증진과 법률 서비스에 가치를 둔다. 둘째, 정부법무공단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국가와 공공의 이익보호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추구한다. 셋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명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의 촉진과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으로 개인과 공공의 복지 증진을 달성하고 법무보호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경우, 수행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평생을 봉사한 퇴직 교도관들이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교정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이를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 및 교정의 선진화 등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구체적 주요업무는 회원의 복지증진·권익신장·상부상조 등 친목도모에 관한 사항, 장학 사업에 관한 사항, 수행자 교정·교화 및 출소자 재사회화에 관한 사항,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위 각호에 필요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등이 해당된다.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79년 4월 16일 교정복지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 후생, 원호사업 등의 복지증진과 공제사업, 장학사업, 수용자에 대한 교정

교화업무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특별법(제정 2015. 8. 11. 법률 제 13455호)에 의하여 설립된 복지단체이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988.08.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법률 제4016호) 공포·시행과 1999.01.29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 공포·시행에 의해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설립목적으로는 각종 범죄의 동향 및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연구하여 국가의 형사정책 수립과 범죄방지에 기여하는 데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의 범죄와 형사 관계 법령 및 통일에 대비 한 형사정책연구와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등이 주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정전반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교정학회는 교정행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여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0년 설립되었다. 교정관련분야에 관한 연구, 교육 및 교정활동 실무 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등 교정선진국과 활발한 학술교류를 통해 한국 교정학의 국제화 등 국내외 관련 연구단체와의 학술교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재단법인 아가페는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수용자 및 출소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화해, 사회와 피해자와의 화해, 자신의 내면과의 화해를 통한 진정한 교화와 이루어 나아가 사회 전체를 성화(聖化)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하였다.

(사)법무부 교정위원 중앙 협의회는 수용자를 위한 교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법무부에서 교정위원으로 위촉하여 각 교정위원의 능력과 지식 및 기술에 적합한 수용자의 상담, 취업지원, 자매결연, 교육, 의료 및 종교 분야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4,700여 명이 교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조직적인 봉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사)아시아교정포럼은 교정보호와 관련된 사회과학분야의 교정학, 범죄학, 법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심리학 등과 인문과학분야를 중심으로 포괄적 과학으로서의 교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6) 2018년 국회 법무부 국정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질의, 뉴스 1, 2018. 10. 15.
 27) 이하 관계조직의 현황 등에 관한 조사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국민들이 교정공무원을 응원합니다!

“

누군가의 꿈이자 미래, 교정공무원

주부 이도희

제 딸아이는 1년 넘도록 교정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저도 딸이 시험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귀동냥 삼아 가끔 들어온 뉴스로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얼추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졸업을 앞둔 딸이 어느 날 문득 교정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라 연유를 물었어요. 어릴 적부터 경찰이 꿈이었던 딸은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경찰을 생각했지만 수용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정공무원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수용자를 다독여주고 사회 적응을 도와주는 교정공무원이 되어 자신도 이 사회에서 미약하지만 등불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딸의 결심을 듣고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어두운 밤 불이 켜진 창문을 밖에서 보면, 그 안에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상할 수 없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추운 겨울 새벽에도 잠들지 못하고 수용소를 관리하느라 애써주시는 교정공무원 여러분이 바로 이 사회의 등불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울러 여러분의 직업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꿈이자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수험생 딸을 둔 엄마로서 여러분 중 누군가 언젠가 제 딸의 좋은 선배가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



“

빛나는 사회의 초석, 교정공무원

직장인 김찬일

다큐멘터리 감상이 취미인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자기 전에 심심풀이 삼아 유튜브 추천 영상 링크 중에 EBS 극한직업 프로그램에서 나온 '교도관'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정공무원의 이모저모를 여러 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영상에서 수용자들의 심리 안정과 건강을 위한 교정공무원의 상냥한 배려가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보니 수용자들의 인권은 전보다 한층 개선되고 있지만 휴대폰 지참도 못 하고 수용자들과 거의 '반징역'을 살고 계시는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는 아직 많이 열악하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호신기구 하나 없이 그저 맨몸으로 수용자들을 상대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정공무원들 역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호신기구라도 지참하고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대 근무하면서 교정공무원들의 식사나 부식은 어떻게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과자 하나로 교대 근무를 버틴다고 하는데 하다못해 야식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의 활약상은 익히 신문기사로도 많이 노출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아직 교정공무원들의 노고는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회가 외면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슴으로 품어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해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누군가는 잊지 않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 3월, 여러분도 봄을 만끽하시고 앞으로도 모쪼록 건강하길 바랍니다.

”



본부 소식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지난 2월 27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정책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수용관리 및 직업훈련 등 주요정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교정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국민참여 조직진단 관련 국민참여단 모집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24일까지 국민참여 조직진단에 참여할 국민을 모집하였다. 범죄자 재범방지에 관심 있는 국민 총 324명이 신청하였으며, 이들 중 연령,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하여 최종 100명을 선정하였다. 국민참여단은 3월 12일부터 안양교도소 등 실제 교정기관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교도관과의 대화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정본부 · 국립무형유산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교정본부와 국립무형유산원이 지난 2월 28일 국립무형유산원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수형자 대상 무형유산교육 및 전통기술 전수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정본부는 수형자에게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공예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무형유산의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위수여식 개최

지난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여주교도소, 전주교도소, 포항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의 수형자 12명에 대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포항교도소 무기수형자 1명이 국어국문학과를 전국 과 수석으로 졸업하고, 10명의 수형자가 성적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삼일절 기념 가석방 실시

법무부는 지난 2월 28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가석방을 실시하였다. 국민대통합을 도모하고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가석방을 통해 모범 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751명이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출소되었다.

교정공무원 초청 영화 시사회 개최

지난 2월 26일 CGV평촌과 송파에서 교정공무원 초청 영화 시사회가 개최 되었다. ㈜CGV와 배급사 ㈜드림팩트가 영화 '빠빠옹'의 정식 상영 전 관련 직업 종사자인 교정공무원을 초청해 마련된 이번 시사회에는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서울동부구치소 등의 교정공무원과 동반자 각 150명이 참석해 영화를 감상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공주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지난 2월 28일 공주교도소 정책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정시설 원격의료 추진사항 등 정책현장을 확인하고 수용자와 원격의료 센터 의사 간 실제 진료 모습을 참관하였다.



일선기관 소식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유경열 2019년도 서울형 교정연합회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2월 26일 서울형 교정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정교화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수용자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함으로써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 위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정연합회의 교화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고, 민간 자원봉사자의 정책의견수렴 및 애로사항을 청취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울구치소 | 교사 변무관 찾아가는 청렴 릴레이 캠페인 실시

서울구치소는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간 찾아가는 청렴 릴레이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근무 특성상 집합교육 진행이 어려워 각 부서별로 방문하였으며, 많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청렴한 서울구치소를 만들어가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안양교도소 | 교도 김희락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안양교도소는 2월 15일 청사 강당에서 교정기관 취업지원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진성디앤피 권재윤 대표를 초청하여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여 우수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를 전달하였다.



수원구치소 | 교위 배창현 청소년 봉사활동과 연계한 시설참관

수원구치소는 2월 21일 직원 자녀 및 관내 중·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구내·외 시설참관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및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교정홍보 동영상 시청, 준법교육, 구치소 내·외의 교정시설을 견학하였고, 주차장 및 민원실, 시설외과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는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최재완 전문 소방교육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2월 19일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강북소방서 정진항 재난관리과장이 직접 실형을 통하여 화재발생 시 불이 연소되는 원리와 화재 진화 방법 및 평소 화재예방을 위한 요령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등 실질적인 화재진압 교육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인천구치소 | 교사 김대현 전 직원 사랑의 헌혈 실시

인천구치소는 2월 15일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 "전 직원 사랑의 헌혈"을 실시하였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인 헌혈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대한적십자 인천혈액원 관계자는 단체헌혈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위 복종우 유병철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유병철 서울지방교정청장은 2월 18일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하여 기관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방문은 중앙통제실·수용동·작업장 등 구내 순시, 분류센터 방문, 직원 간담회 순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수용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과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유청장은 직원 간담회를 통해 모범교도관 포상을 실시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권오일 사랑나눔 단체헌혈 행사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2월 11일 교도소 내 연무관 앞 헌혈버스에서 '2019년 사랑나눔 단체헌혈 행사'를 가졌다. 이번 헌혈행사는 혈액수요는 증가

하는 반면 헌혈인구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혈액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정공무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정부교도소 | 교도 김주용 직원 생일축하회 실시

의정부교도소는 2월 13일, 1·2월에 생일을 맞은 직원들을 초대하여 생일축하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축하영상 상영과 함께 준비된 음식을 나누며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 생일축하회는 매월 생일자를 초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훈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여주교도소는 2월 13일 청사 앞에서 헌혈버스를 이용해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하였다.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이날 행사는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직원 위한 작은 음악회 개최

서울남부교도소 음악동호회 '천왕성'은 2월 11일 직원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회동 총무과장의 하모니카 연주를 시작으로 6명의 동호회 회원들이 80년대 인기곡을 통기타, 베이스 등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하여 직원들의 큰 박수와 감동을 이끌어 냈다.

춘천교도소 | 교사 신창훈 방호실태 및 총무계획 시행태세 점검 실시

정일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 등 2명은 2월 21일 춘천교도소를 방문하여 방호실태 및 총무계획 시행태세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날 점검에서는 상황실 통제실 등의 전반적인 방호실태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외곽펜스, 참호 등 방호시설을 점검하고 주변 시설물 등을 점검하였다.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생명나눔-사랑의 헌혈행사 실시

원주교도소는 2월 13일 대한적십자사 강원

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행사를 통한 사랑나눔을 실천하였다. 이날 행사는 최근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수혈이 필요한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혈액 부족으로 인한 응급환자의 진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태석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 실시

강릉교도소는 2월 22일 강릉교도소 교정협의회와 오병이어 봉사단의 지원을 받아 수용자들에게 붕어빵 1,200개를 지급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강릉교도소 교정협의회 위원들과 오병이어 봉사단 회원 10여 명이 붕어빵 재료와 도구를 가져와 직접 만들어 지급했다.

영월교도소 | 교도 서주현 세명대학교 행정학과 참관 행사

영월교도소는 지난 2월 19일 세명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중앙통제실, 수용동 등 교정시설을 직접 참관함으로써 교정 이미지 제고 및 열린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위 김관순 새해맞이 지역 환경 정화 활동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2월 19일 기관주변 인근 도로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활동은 특히 최근 기관 근처에 다수의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시되었으며, 청소 후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를 보며 많은 직원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소망교도소 | 배현승 수용자 문화공연 개그우먼 조혜련 토크 콘서트 실시

소망교도소는 2월 12일 수용자의 문화행사 참여 확대와 인성변화를 위해 '조혜련 토크 콘서트'를 실시하였다. 60분간 진행된 공연은 개그우먼 조혜련의 유쾌한 진행으로 수용자 고민상담의 시간을 가졌고, 본인의 개인사를 특유의 재치있는 입담으로 풀어내어 많은 수용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연이 되었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허광명 청렴실천 결의대회 실시

대구지방교정청은 2월 25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직원들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알선·청탁행위를 받지도, 하지도 않을 것을 약속하고, 법령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캠프 개최

대구교도소는 2월 26일 "우리가족 도란도란 행복울타리"란 주제로, 수용자 4명과 어린 자녀사이에 관계회복을 돕기 위하여 "가족사랑 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번 캠프는 법무부와 대구교도소가 주최하고, 달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진행하였으며, 자녀와 소통하기, 가족 얼굴 퀴즈만들기 등 다양한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을 통하여 소원해진 가족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가족과의 유대 강화와 수용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다.

부산구치소 | 교사 박창훈 검도 지도사범 위촉

부산구치소는 2월 13일 대한검도회 이천혁 지도사범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검도동호회 지도사범으로 위촉하였다. 위촉된 이천혁 지도사범은 교정공무원의 검도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매월 부산구치소 연무관에서 개최되는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검도교실"의 지도까지 참여할 예정이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사 김남규 지역 학교 졸업생에게 장학금 전달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2월 15일 지역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관내 소재한 진보고등학교 졸업생

1명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2008년 교정장학회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모범학생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도 교정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고 있다.



창원교도소 | 교도 박혜빈 해군 잠수함 사령부 참관 실시

지난 2월 12일 창원교도소에서는 해군잠수함 사령부 잠수함수리창 참관이 실시되었다. 이날 참관에는 수리창 직장장(서기관) 박중재 등 27명이 참가하였으며, 출역사동 → 작업장 → 직업훈련장(제빵)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여한 수리창 직원들은 교정시설이 단순 구급이 아닌 안정적인 사회복귀에도 크게 노력하는 모습에 색다른 감회를 느낀다고 간략한 소감을 표했다.

부산교도소 | 교사 문수환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 실시

부산교도소는 2월 18일 헌혈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헌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직원 헌혈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부족한 혈액을 확보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부산교도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생명 나눔 실천에 동참하였다.

포항교도소 | 교사 권대희 청렴실천 결의대회 행사 개최

포항교도소는 2월 1일, 밝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직원들은 이번 결의문을 통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의 길잡이로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대구지방교정청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설맞이 백설기 기증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2월 1일 진주교도소에 설을 맞이하여 전 수용자를 위한 백설기를 기증하였다. 이번 기증을 통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온정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대구구치소 | 교사 광명재 2019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대구구치소는 2월 11일 건전하고 안전한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한 ‘2019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 직원들은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 발생현황,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 성희롱 예방 전반에 대해 교육받았다. 향후에도 성인식 감수성 배양을 위한 실질적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하우현 지역 학교 우수 졸업생 표창장 수여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2월 15일 지역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관내 소재한 진보초등학교 졸업생 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다. 한편,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전 직원을 회원으로 하는 ‘사랑의 손길회’를 통해 매년 지역사회와의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직원 34명 ‘사랑의 헌혈 운동’ 동참

안동교도소 직원 34명은 2월 12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 운동’에 참여하여 인도적 나눔 정신을 실천하였다. 이날 헌혈 행사는 개인 헌혈이 줄어들어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는 동절기에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도 심상헌 사랑의 손잡기 결연 가정 성금 전달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2월 21일 사랑의 손잡기 결연가정을 방문하여 행복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

로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진보면 어르신 두 분에게 방문하여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전달하고, 집안 보수를 도와드리는 등 지역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김기연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식 개최

김천소년교도소는 2월 20일 소 내 다목적 홀에서 제35회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박복로 김천중앙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강희락 교정협의회장 및 소년수형자와 가족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졸업식은 희망과 축하, 눈물과 감동이 어울린 자리가 되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사 이우성 설맞이 수용자 합동차레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2월 5일 설을 맞이하여, 직업장 봉사원 등 19명이 모여 조상을 기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등 수용자 심성순화를 통한 건강한 수용생활을 위해 수용자 합동차레를 실시하였다.

울산구치소 | 교사 이지수 기증품 전달식 실시

울산구치소는 2월 1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를 위한 130만 원 상당의 기증품을 전달받아 ‘정(情)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기증한 물품(떡, 빵)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떨어져 사회와 격리된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전달되었다.



경주교도소 | 교위 박상신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개최

경주교도소는 2월 11일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전 직원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청렴한 교정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선서와 함께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통영구치소 | 교위 강구혁 우수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통영구치소는 2월 18일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여 우수기업(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으로 선정된 ㈜울인원거제 대표 최진에게 인증서 및 인증패를 전달했다. ㈜울인원거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에 참여해 통영구치소 출소자 4명을 채용하였다.

밀양구치소 | 교사 이상현 사랑의 헌혈 행사 실시

밀양구치소는 2월 20일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하였다. 올 겨울 혈액수급 부족현상으로 전국 혈액보유량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경남혈액원의 방문 협조를 받아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날 행사에 직원 12명이 동참했다.

상주교도소 | 교위 임대욱 문경새재 달빛사랑 걷기 행사 개최

상주교도소는 2월 20일 직원들과 함께 문경새재 달빛사랑 걷기 행사를 펼쳤다. 문경새재는 어느 때에 걸어도 고즈넉한 분위기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과 함께하는 기분이 드는 곳으로 넉넉하고 수려한 자연풍광과 함께 풍성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걷기 행사에 참가한 직원들은 달빛을 벗 삼아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하며 일상과 업무에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조남욱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대전지방교정청은 2월 26일 애국심 고취와 독립유공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하였다. 박병용 청장은 이날 참배를 통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에 자부심을 느끼고,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함께 기억하기를 바란다”며 직원들에게 당부하였다.



대전교도소 | 교감 송재상 사랑의 도시락 배달 행사 실시

대전교도소 봉사동아리 ‘희망세상’은 2월 16일 대전시 대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거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도시락 배달 행사를 실시하였다. ‘희망세상’은 평소 독거어르신들 가정 도배 및 장판 교체, 백숙 대접 봉사 등으로 주민 친화적인 교정 공무원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청주교도소 | 교위 박용규 교정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청주교도소는 2월 22일 교정자문위원회 위촉장 전수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부위원을 초빙하여 현안 과제인 ‘과밀수용 해소 방안’과 ‘지역사회 내 교정시설 유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는 등 기관운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천안교도소 | 교도 김우겸 사랑의 헌혈 봉사활동 실시

천안교도소는 지난 2월 19일 동절기 혈액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혈액공급의 동침을 위해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혈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예전과 달리 단체 및 개인 헌혈이 급격히 줄어들어 혈액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직원 22명이 사랑의 헌혈행사에 동참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청주시립예술단 교화공연 개최

청주여자교도소는 2월 18일 청주시립예술단 교화공연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연은 수용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청주시립무용단의 무용과 청주시립합창단의 합창공연을 통해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활기차고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날 신나는 장구가락이 있는 설장구를 비롯해 쟁강춤, 화랑무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으며 시립합창단의 하모니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하였다.



공주교도소 | 교위 이경민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개최

공주교도소는 2월 19일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직원들이 전통놀이를 즐기면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상호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을 통해 웃음이 가득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충주구치소 | 교위 김인호 모범수형자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개최

충주구치소는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지난 설 명절에 가족을 만나지 못해 아쉬워했던 모범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수형자 40명과 가족 95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수형자들은 가족들이 정성스레 준비해 온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모처럼 수형생활에서 오는 긴장감과 무료함을 달래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하대웅 월례교육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2월 1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행복한 직장, 화합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월례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월례교육에서는 김평근 소장이 준비한 강의자료를 바탕으로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올바른 관계형성을 위한 소통이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홍성교도소 | 교사 김성준 교정자문위원회 위촉장 전수식 개최

홍성교도소는 지난 2월 26일 소장과 각과 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 교정자문위원 조규홍 변호사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수식이 끝난 후 교정 인식제고 및 교정 행정이해도 향상을 위해 소 내 시설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사 유제영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 행사 개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2월 18일 동절기 혈액수급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의 도움으로 실시하였으며, 어려운 근무환경에도 교정공무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많은 직원이 동참하였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정연호 사랑의 헌혈 행사 참여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2월 11일 혈액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충남혈액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사랑의 헌혈 행사에 동참하였다. 헌혈에 참가한 한 직원은 ‘직원들의 작은 실천이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헌혈 후 소감을 밝혔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김윤규 이 달의 모범교도관 시상식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2월 27일 정부광주지방법동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이 달의 '모범교도관, 교정사고 방지 유공자 및 교도작업 생산왕'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광주교도소 전금현 교감 등 8명이 모범교도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및 복용지도를 철저히 하여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군산교도소 도현정 교위가 교정사고방지 유공직원으로, 직영(봉제) 위탁작업 운영 활성화에 노력한 군산교도소 양은규 교위 등 3명이 교도작업 생산왕으로 각각 수상을 했다.



광주교도소 | 교사 박승현 보호장비 교육 실시

광주교도소는 2월 11일 보안과 직원교육실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호장비(보호의자 등)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수용자 소란, 난동 등 상황발생 시 수용자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게 보호 장비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사건발생 시에는 직원들이 당황하지 않고 보호장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직원과 수용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전주교도소 | 교위 김도훈 수용자 합동차례 실시

전주교도소는 2월 1일 소 내 강당에서 교령수형자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용자 합동차례'를 지내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건강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하였다.



순천교도소 | 교위 윤선호 생명나눔 헌혈 봉사활동 실시

순천교도소는 2월 15일 청사 앞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차량지원으로 생명나눔 헌혈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동절기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혈액원의 요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목포교도소 | 교도 박경웅 청렴실천 결의대회 실시

목포교도소는 2월 1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과 공직자강 확립을 위하여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박병일 소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며 청렴한 공무원집단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하고 청탁금지법 등 관련법령 준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 하였다.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위라벨 음악동호회 구세군 군산목양원 위문 공연 실시

군산교도소 위라벨 음악동호회는 2월 1일 군산시 소재 '구세군 군산목양원'에서 설맞이 위문 공연을 실시하였다. 이날 공연은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군산교도소 위라벨 음악동호회에서 솔선하여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소외계층을 위문하여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홍지호 작은 음악회 개최

지난 2월 1일 제주교도소 음악동호회 '모드락 밴드'가 직원들 앞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실력을 뽐냈다. 직원들은 감미로운 노래와 연주를 들으

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으며, 밴드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등 모두 하나가 되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장흥교도소 | 교위 송판근 설 명절맞이 위문 방문

장흥교도소 보라미 봉사단은 2월 1일 정남진 그룹홈을 방문하여 설 명절맞이 선물을 전달하면서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보라미 봉사단은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을 봉사하는 날로 정해 놓고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무료배식 봉사과 정남진 및 탐진그룹홈을 방문하여 미취학 아동 학업 지도 및 청소년 대상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수년째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해남교도소 | 교도 이상문 해남겨자씨공동체 봉사활동 실시

해남교도소는 2월 19일 해남군내 부랑인 복지시설 해남겨자씨공동체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직원과 수용자가 함께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은 겨울 내내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겨자씨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고, 시종일관 밝은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정읍교도소 | 교사 안하옥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직장교육 실시

정읍교도소는 2월 7일 웃음을 통한 직무스트레스해소를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전북과학대학교 방송연예미디어과 이만세 교수를 초청하여 진행하였고, 웃음을 통한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진정한 소통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교정공제회

교정공제회 하반기 교정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의뢰

교정공제회는 지난 2월 27일 교정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해 각 교정기관으로 공문을 발송하였다. 교정공제회는 매년 회원들에 대한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타 공제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정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제회원이라면 누구나 대학교 학사학위 과정에 입학하거나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이상에 진학한 공제회원 또는 회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위과정 구분없이 1회에 한하여 70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금년부터는 개정된 장학사업규정에 따라 회원 가입기간을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회원에 한하여 지급되며,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대학 또는 교육과정 이과 유사한 대학과 공제회원 또는 그 자녀가 장학금 수혜를 받고 다른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후 재학기간 중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교정장학금과 관련된 사항은 교정공제회 홈페이지(<http://cma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군교도소

서예 교화프로그램 실시

국군교도소는 2월 13일 장기수용자의 인성함양을 위한 '19년 서예 교화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서예는 국군교도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교화프로그램으로 작년 여름부터는 (사)한국예술협회 제6회 대한민국예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정광교 강사가 장기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군교도소는 서예뿐만 아니라 도예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프로그램을 계획해 수용자의 문화적 소양 충족 및 인성함양을 할 예정이다.



모범공무원을 소개합니다



서울남부교도소
교사 이종원

집중인성교육의 내실화와 수용자 인성변화에 기여

보안과 근무 시 수용자 교정교화와 범죄예방에 노력하는 한편, 중앙통제실 근무 시 전자장비 운영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야간에 발생하는 영상장비 등의 장애상황을 신속히 대응하여 복구·조치하였다. 또한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교정사고 예방에도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7년 8월부터는 사회복귀과 집중인성교육 담당자로서 외부강사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내실 있는 수행자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집중인성교육 시 음악치유 기타 반주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 수행생활안내 등 내부강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교육생들과의 피드백을 통한 신뢰를 구축하는 등 집중인성교육 내부강사로서 교육의 내실화 및 수용자 인성변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서울

대구

교도작업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세입목표의 초과 달성

2018년부터 대구교도소 직업훈련과 봉제담당으로 근무하며 신형근무복 제작 관련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질의 신형근무복을 제작하여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또한 수용자 자비 구매물품인 겨울담요 및 춘추담요를 생산함에 있어서 제품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시장조사 및 기술 습득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수용자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용자 처우에도 노력하는 한편, 세입 목표액을 초과 달성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기여하였다.



대구교도소
교감 김동영



대전교도소
교위 이호현

직원 화합 및 수용자 고충 해소 위해 노력

보안과 현행 사무로서 일일 현황 및 각종 정보 보고에 철저를 기하고 형집행정지 건의, 이송 및 입수 수용자 검토, 휴일 수용자 배방 등 많은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였다. 또한 보안 현업 근무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직원화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총무과 수용기록계 근무 시 연간 15,000건 이상의 이송 및 소송 서류를 처리하고 수용자 이송 관련 상담 및 재판 절차 안내 등을 통하여 수용자 고충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다.

대전

광주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하고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남다른 열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성실한 근무자세로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사고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교도관이다. 특히 2018년 12월 24일 13:40경 민원인이 핸드폰을 소지한 채 수용자와 접견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접견호실로 들어가 민원인에게 핸드폰을 접견실 보관함에 보관토록 유도하는 등 능동적인 근무로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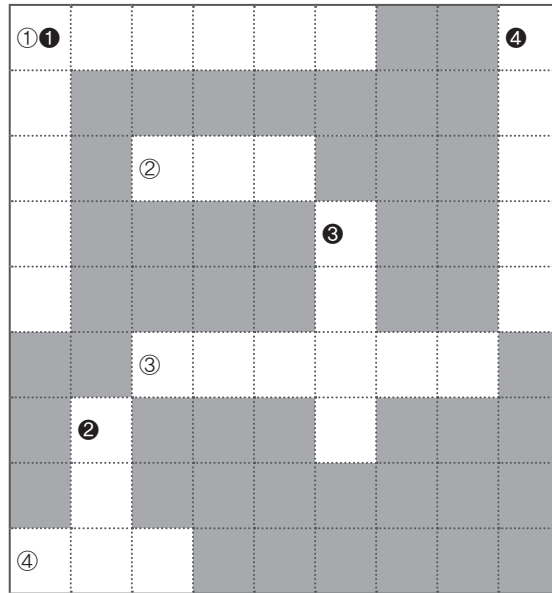


군산교도소
교위 오수환

교정 낱말퀴즈



월간 <교정> 이번호에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로열쇠

- ① 현재 서울 서대문구에 있으며, 일제강점기 시절 지어진 이 감옥은 80년 동안 약 35만 명이 수용되며 우리 민족의 슬한 수난사를 잉태한 이곳은?
- ②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날이 되면 자주 피곤해지고 오후만 되면 졸립고, 소화도 안 되며, 업무나 일상에도 의욕을 잃어 쉽게 짜증이 나기도 하는 이 증상은?
- ③ 1990년에 창립한 학회로 보통 해당 분야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는 것과 달리 실무를 맡고 있는 교정공무원들의 니즈가 동력으로 작용했으며, 교수회원 100여 명, 교정공무원 400여 명 등이 참석하고 있는 이 학회 이름은?
- ④ 가격대비 효율과 더불어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중시하는 소비 형태를 일컫는 신조어?

세로열쇠

- ① '교정은 행복을 신고'팀이 찾은 곳으로 전국 기관 중에서 인원인이 가장 많이 찾는 이곳은?
- ② 타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는 기대감 없이 남을 돕고자 하는 행동을 취하는 마음으로 '이기심'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이 말은?
- ③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이 처형된 뒤 중국 상하이에서 이 단체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계속 했다.
- ④ 시드니 도심에 자리한 철제 아치교로 1932년 개통 될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로 주목을 받았으며, 아치 모양 덕분에 '웃걸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다리는?



★ 정답 보내실 곳 ★

독자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거나, 상단 QR코드를 통해 참여 페이지에 접속한 후 정답을 적어 응모하시면 됩니다. 아래 E-mail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는 분께는 월간 <교정>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전화 02-2272-1190 E-mail correct2015@naver.com



생활상식

1. 양치 후 양치물을 변기통에 넣고, 10분 후 물을 내리면 악취가 사라진다.



2. 달걀을 삶기 전에 한 시간 정도 실온에 둔 다음 소금을 약간 넣어주거나 식초를 몇 방울 넣으면 터지지도 않고 잘 삶아진다.



3. 눅눅해진 김을 전자렌지에 살짝만 돌려주면 다시 바삭 바삭 해진다.



4. 옷에 볼펜자국이 묻었을 때는 물파스로 싹싹 문질러 주면 볼펜자국이 잘 지워진다.



모르면 손해 볼 생활상식

10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당황스럽거나 곤혹스럽게 만드는 상황들과 마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에 간단하지만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생활상식을 알고 있다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교정>에서는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상식 10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5. 돼지고기를 요리할 때 커피 한 스푼만 넣으면 잡냄새를 말끔히 없애 주는 효과가 있다.



6. 말라서 딱딱해진 식빵 사이에 새 식빵을 끼워주면 말랐던 다른 식빵들도 새 식빵처럼 촉촉해진다.



7. 사과 반쪽을 차 안에 하룻밤 놔두면 차 안에 냄새가 제거된다.



8. 장미꽃을 화병에 꽂을 때 소다수를 부으면 시들지 않고 오래 간다.



9. 옷에 묻은 잉크의 얼룩은 하룻밤 동안 우유에 담가 두었다가 빨면 깨끗이 없어진다.



10. 더러운 욕조는 버터와 고운 소금 그리고 우유를 섞어 닦아주면 새것과 같이 윤이 난다.



함께 만들어 가는 월간 교정

〈교정〉지는 독자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교정〉지의 편집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화같은 하루’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영화같은 하루는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은 독자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영화속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월간〈교정〉 주인공은 ‘나야 나’



2019년 월간〈교정〉의 ‘교정 백일장’, ‘영화같은 하루’, ‘추억을 담다’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 지는 콘텐츠들입니다. 또한 월간〈교정〉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교정본부의 대표 매거진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월간〈교정〉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독자의 소리

항상 교정의 현재와 미래를 한 권의 책으로 담기위해 애쓰시는 모든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교정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로 드라마 하나 만들어보는 어떨까요?
- 김태원 님(군산교도소 교감)

교정공무원들의 사연을 많이 소개해 주었으면 합니다. 같은 교정기관 사람들의 사연을 보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 문해호 님(밀양구치소 교감)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창작의 고통 속에서 좋은 결과물인 〈교정〉지가 나왔으면 합니다.
- 이승용 님(부산구치소 교위)

매달 좋은 내용의 〈교정〉지 발간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지면에 실을 수 있는 좋은 글도 보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윤동호 님(해남교도소 교사)

〈교정〉지를 만드시느라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사진에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교정〉에 실린 사진이 뭐하는 사진인지 설명을 달아주세요.
- 이대원 님(서울구치소 교사)

지난 호 퀴즈 정답

		②세							
①목	①민	심	서					④이	
	원			②교	정	동	호	회	
	서		③알					통	
	비		카					신	
	③스	마	트	폰				비	
					라				
			④키	즈	카	페			
					섬				



퀴즈 정답자

- 이재국 님(서울구치소 교감)
- 안연현 님(인천구치소 교위)
- 박동진 님(원주교도소 교도)
- 허의녕 님(서울구치소 교도)
- 이기섭 님(소망교도소 9직급)

신청을 받습니다

- 일시 : 2019년 매월
- 콘텐츠 : 영화같은 하루
- 대상 : 월간〈교정〉을 구독하고 있는 모든 교정공무원
- 진행방법 : 신청한 독자가 원하는 것을 일정을 잡아 실행시켜준다.
- 신청방법 : 월간〈교정〉 내 엽서이용
이메일 _ correct2015@naver.com / yjw1219@korea.kr
월간〈교정〉 내 QR코드 스캔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월간〈교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기억하는 100년!
기약하는 100년!



100th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2019년 3월 1일(금)~2019년 4월 11일(목)